Side B



숨은 명곡처럼 곳곳에 담긴 춘천 도시재생 이야기

Side B

숨은 명곡처럼 곳곳에 담긴 춘천 도시재생 이야기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Side B

숨은 명곡처럼 곳곳에 담긴 춘천 도시재생 이야기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소양하다

비매품
03060
9 791198 146649
ISBN 979-11-981466-4-9

Side B

숨은 명곡처럼 곳곳에 담긴 춘천 도시재생 이야기

Side B

숨은 명곡처럼 곳곳에 담긴 춘천 도시재생 이야기

Contents

06 Intro

08 『Side B, 춘천』과 스트리트 리포터 소양하다

10 도시, 재생(Play, Replay) 이경은

12 스트리트 리포터 2기 소개

42 춘천 도시재생 권역 지도

44 Track 1. Folk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동네

46 사람들의 온기가 머물던 자리, 동네 슈퍼 강지연

54 되살아난 청춘, 담터 땡밥 정예빈

60 하루만 서재를 갖고 싶다 이수현

66 춘천이라는 강 김지현

72 봉의산 비탈마을 여행기 김민주

84 Track 2. Classic
예술과 도시, 일상에서의 영감

86 도시에서 피어난 예술의 씨앗 박민화

96 소양을 쌓는 공간, 라킷키 작업실 이혜진

104 재생자들: 시공을 넘어 이어지다 최민수

116 Track 3. JAZZ
도시의 맛, 여행이 주는 새로움

118 봄내에서 디저트를 김가은

128 춘천 지하도상가 탐험기 조원영

134 선(線)의 관점에서 해석한 우두동 박지훈

146 춘천의 두 책방이 만드는 '마음이 머무는 풍경' 지미현

158 Eding Track

160 Photo Record

Intro

08 『Side B, 춘천』과 스트리트 리포터 소양하다

10 도시, 재생(Play, Replay) 이경은

12 스트리트 리포터 2기 소개

42 춘천 도시재생 권역 지도

『Side B, 춘천』

글. 소양하다

숨은 명곡처럼 곳곳에 담긴 춘천 도시재생 이야기

『Side B, 춘천』은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홍보단 프로젝트 '스트리트 리포터'의 기록을 엮은 결과물입니다.

책의 제목 『Side B, 춘천』은 음반 뒷면에 수록된 곡들을 의미합니다. Side A에 수록된 메인 트랙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되는 노래들처럼 도시의 일상에 숨어 있는 가치와 이야기를 재생(Play)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열두 명의 '스트리트 리포터'는 도시재생을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닌,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도시의 또 다른 면을 기록의 형식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각 챕터별 큐레이션 된 음원들과 함께 숨은 명곡 같은 춘천 도시재생 이야기를 감상하고, 여러분의 기억 속 춘천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스트리트 리포터

기록으로 춘천을 재생(Play)하는 사람들

'스트리트 리포터'는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소양하다가 함께 운영한 기록 프로젝트입니다. 춘천 도시재생 현장에서 직접 걷고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도시의 변화를 시민의 시선과 이야기로 엮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스트리트 리포터는 기록화에 집중하여, 취재와 집필 과정을 '기록집'으로 연결했습니다. 열 두명의 참여자들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넘어 '춘천학' 이라는 지역 인식, 에디터로서의 시선, 여행자의 감수성까지 배워 나갔습니다. 더불어 영상 기록과 텍스트 기록을 통해 도시를 다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출판이라는 형태로 확장하는 기획을 경험했습니다.

도시재생은 빠른 결과보다 천천히 맥락을 읽고 주민과 함께 변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처럼, 볼륨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스트리트 리포터는 춘천의 화려한 앞면만 비추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이야기, 작지만 따뜻한 관계, 소소하지만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리트 리포터는 그 자체로 춘천의 'Side B'이자, 도시재생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숨은 명곡 같은 춘천 도시재생 이야기를 기록한 리포터들과 함께 주파수를 맞추고, 『Side B, 춘천』의 플레이리스트를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스트리트리포터
활동 보기

도시, 재생

이경은 코디네이터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Play, Replay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 윤한 대표님이 스트리트 리포터에게 물었습니다. 함께한 여정이 어떠했느냐고요. 리포터들은, 춘천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서 좋았다고 이야기했죠. 또 이 분야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애정이 담긴 소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었죠.

스트리트 리포터의 활동은 제게도 이 씬에 머무는 이유를 찾게 했습니다. 도시재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거든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던 찰나, 스트리트 리포터의 소감과 기록은 제게 따스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바랐던 것은, 도시재생 주제의 확장과 화자의 확장이었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도시재생을 다루고, 더 많은 사람들과 도시재생을 이야기하길 바랐습니다.

애써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트리트 리포터는 처음부터 그러려고 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첫 기록부터 도시재생에 대해 거침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정의했죠. 참 쉬워 보였고, 명쾌했고, 모두가 맞는 답이었고, 그래서 다들 반짝반짝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기록들을 찬찬히 보다 보니, 기획 단계부터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아다니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시 기록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죠. 수많은 이유를 떠올렸지만, 어쩐지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록을 책으로 만난 지금, 드디어 하나의 문장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도시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 도시에 기꺼이 머무는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이 문장이 첫 번째인 게 좋겠습니다.

이 책에 담긴 기록에는, 스트리트 리포터가 도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녹아있습니다. 이 글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도시의 온기를 발견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춘천을 새롭게 알아가는 중입니다

Interviewee 강지연

interviewer 김나래



춘천과의 인연과 첫인상

춘천에서 쌍둥이 아들을 키우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2011년 결혼과 함께 남편을 따라 춘천에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춘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어떤 곳에 살고 싶어?"라는 남편의 물음에 "걸어서 마트, 병원, 주거래 은행을 갈 수 있는 곳에 살고 싶다."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운전이 서툴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았어요. 춘천 생활이 벌써 14년 차인데,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춘천은 아주 오래전에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친구와 닭갈비 먹으러 딱 한 번 와본 곳이었죠. 어떤 연고도 없는 지역이라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 도시와 전원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춘천이 점점 더 좋아졌어요.

춘천에서의 특별한 경험

쌍둥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직업을 다시 가진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라는 역할 이외에 나 자신을 잊지 않으려고 틈틈이 노력했어요. 현재는 잠시 쉬고 있지만 3년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남편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평소에 박물관이랑 미술관 다니는 걸 좋아해서 작년에 춘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전시해설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인연으로 가끔 도슨트 활동을 하죠. 그리고 지금은 스트리트 리포터 2기 활동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 위주로 살다 보니 생활 반경이 정해져 있어서 춘천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들었는데 역시 교육과정 중에 내주신 과제들 덕분에 자의 반 타의 반 춘천을 열심히 알아가는 중입니다.

춘천에게 전하는 말

안녕 춘천! 내가 태어난 곳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 이곳이야. 언젠가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겠지.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춘천, 그리고 이제는 내 아이들의 고향이기도 한 춘천에서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춘천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랄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캐는 감자

Interviewee 김가은

interviewer 조원영



세 가지 키워드로 표현한 정체성

학생 학생이라는 신분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체성 같아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즈음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우러 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이라는 키워드로 저를 소개할 수 있죠.

탐지견 새로운 도전을 정말 두려워하는 겁쟁이인데요, 요즘엔 여러 가지 도전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스트리트 리포터도 그런 활동 중 하나였고요! 언제나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제 모습이 마치 마약을 찾기 위해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서성이는 탐지견 같아 보여서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대중문화 중독자 어릴 때부터 책과 TV를 참 많이 봤어요. 오빠들의 영향으로 집에 다른 친구들보다 게임기도 많은 편이었고 컴퓨터도 많았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많이, 그리고 빠르게 대중문화를 접했어요. 포켓몬스터를 좋아하다가 중학생 때부터는 아이돌 샤이니에 빠졌고, 대학교에 오니 연극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최근엔 책과 영화를 좀 더 많이 접하고 싶어서 시간날 때마다 리뷰를 남겨놓고 있어요!

춘천의 감자 같은 사람

저는 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춘천의 감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감자는 땅에 파묻혀 있다가, 캐내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먼저 찌개, 피자와 같은 음식에도 들어가고, 감자전, 감자빵, 감자칩처럼 감자가 메인이 되는 음식도 있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감자를 이용한 화장품도 있죠. 약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청소할 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채소 중에 이렇게 활용도가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저도 지금은 땅속에 파묻혀있지만, 언젠가는 사회에 나와 여러 도움이 되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춘천을 재생한다면

저는 대중교통을 재생하고 싶어요. 매일 느끼지만, 춘천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가 정말 너무 불편하죠. 매일 택시 타는 것도 부담이고 춘천에 와서 처음으로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스트리트 리포터 기억하고 싶은 것

춘천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고,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본가가 인천인데요. 저도 인천이라는 지역을 참 좋아하지만, 인천이 너무 좋고, 인천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했어요. 물론 모두 자기 지역을 사랑하며 벗어나고 싶지 않겠지만, 춘천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곳의 사람들은 애향심이 더 강한 거 같다고 생각하게 된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춘천 사람들의 애향심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스트리트 리포터 활동을 신청한 계기가 되었어요. 스트리트 리포터 활동을 보면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분들, 춘천이라는 도시에 호기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좋을 거 같아요.



사람들의 존재가 도시를 의미 있게 만들었다

Interviewee 김민주

interviewer 박지훈



대학에 입학하여, 익숙한 고향에서 떠나 낯선 지역에 정착해 살아온 김민주는 춘천에서 사람들과의 인연을 통해 인생을 배워가고 있다. 그녀는 성인이 된 이후로 낯선 공간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졌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이전에는 청주에서 계속 살았는데, 한편으로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많이 돌아다녔어요."*

나 홀로 춘천이라는 지역에 처음 살게 된 첫 경험은 어떤 의미였을까. 대학이라는 명분으로 오게 되었지만, 김민주에게 춘천의 첫인상은 그다지 특별한 기억으로 남지 않았다. *"솔직히 춘천에 대한 기억은 좀 시골스럽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후에 그녀는 춘천이라는 낯선 타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춘천이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있던 공간에서 벗어날 때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기며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경계심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며 그런 고정관념을 지워버렸다. *"단기 알바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사장님들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쩌면 그러한 기억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춘천 사람들에게 호감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좋은 기억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최근에는 이별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근처에 사는 춘천의 언니가 떡볶이를 사주며 위로해 줬다. 또 다른 언니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도마뱀을 선물해 줬는데, *"요새는 정말 이 도마뱀 덕에 산다.(웃음)"*라고 말했다.

'사람'으로 도시를 이해하는 방식

춘천은 낯선 이방인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김민주가 가진 쾌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본연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도시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방식임을 직관적으로 아는 듯했다.

비참해지거나 무기력한 감정이 들 때 인생에 참견해 줄 누군가, 위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김민주는 그때 마주한 '춘천인'이라는 공동체성과 춘천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다.



춘천에 마음을 반쯤 걸치고 살아요

Interviewee 김지현

interviewer 정예빈



춘천에 산다고 다 춘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지역에 머무르며 편안함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마음속에 선을 긋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적응의 동물이다. 마음이 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느새 추억을 만들고 그러다가 그곳을 마음 한편에 품기도 한다.

열두 살의 겨울, 처음 이사 온 춘천은 낯설고 어색했다.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고 힘들었지만 버텼고 떠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을 만든 배경이 되어 있는 곳. 지현에게 춘천은 그런 존재였다. 반쯤은 타지 사람, 반쯤은 토박이인 그녀가 조금씩 천천히 이 도시에 마음을 기울이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고향은 인천이에요. 그렇지만 춘천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의 '토박이 감성'이 있는 거죠."*

지현은 자신을 반쯤 춘천 토박이인, 일명 '반토박이'라고 소개했다. 인천에서 태어나 수원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다 눈 내리는 겨울에 처음 만난 춘천은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다. *"전 놀이공원을 참 좋아했는데요, 수원에 있을 땐 에버랜드가 가까웠어요. 가족끼리 놀러 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춘천으로 오면서, 놀이공원이 멀어진 게 좀 아쉬웠어요."*

어린 나이에 삶의 배경이 확 바뀐다는 건 생각보다 큰 사건이다. 동네, 말투, 분위기부터 달랐다. *"'여긴 뭐지?' 싶었어요. 낯선 곳에 갑자기 들어온 기분이라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새로운 학교에서는 만난 아이들에게 거리가 느껴졌죠. 그 아이들은 다 괜찮았지만, 저는 이곳의 분위기가 낯설고 어색해서 정을 붙이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현이 마음 둘 곳은 있었다.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었어요. 문방구 앞에서 만나서 놀고, 영화관도 같이 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렸던 시절의 저에겐 큰 위로였죠."*

그렇게 낯설던 도시에 작은 정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춘천은 지현에게 서서히 새로운 얼굴을 보여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요. 웃긴 얘기, 좋아하는 만화나 게임 얘기를 나누면서 편한 사람들과 사는 느낌이었죠. 스펀지밥 이야기로 웃던 기억이 가끔 생각나요."*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시절 친구들은 여전히 지현의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 있다. *"사회에선 어른이 되고, 대학에선 선배가 돼야 하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말도 편하고, 감정도 솔직해지니까요."*

얼마 전에는 잊고 지냈던 추억이 다시 연결된 순간도 있었다. 성인이 되고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초등학교 시절 친구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것이다. *"전화번호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검색해서 찾았대요. 보고 싶고, 궁금해서요. 같이 힘들었던 시절을 지낸 친구는 춘천 지하상가에 창업해 멋지게 살고 있었죠. 다시 만나니까 진짜 신기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뭔가 회복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멈췄던 관계가 다시 재생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춘천은 지현에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다. 어색했던 시작부터 관계의 어려움, 따뜻했던 순간들까지 모두 얽혀 있는 공간이 되었다. *"완벽하게 '좋아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누가 '춘천 분이세요?'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죠."*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던 지현은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며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수업 시간에 몰래 문학책을 읽었던 기억도 있고요. 친구 사귈 때도 그런 취향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앞으로의 꿈은 문학을 중심에 두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출판사 에디터가 될 수도 있고, 글을 쓰며 다른 일을 겸업할 수도 있다.

"아직은 탐색 중이에요. 다만, 문학은 분명 계속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조금씩 더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에디터나 콘텐츠 관련 일을 하려면 춘천에만 머무를 수는 없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 길이 설레기도 하지만, 떠나서도 춘천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쉽게 놓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젠 다른 지역에 가서 춘천닭갈비 같은 간판을 보면 괜히 반가워요. 그럴 때마다 '나도 춘천 사람 다 됐구나' 싶죠. 지역과 나를 분리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 춘천에서 생긴 많은 일들.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 그 안에서 자라고, 흔들리고, 관계를 맺으며 지금의 지현이 되었다. 그래서 춘천은 여전히, 지현의 마음 어딘가에 자리한 도시다.

이야기를 품은 도시, 추억이 묻은 골목,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애정을 느끼게 되어버린 춘천이라는 이름. 기쁜 일도, 아픈 일도,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겪으며 지현은 자라고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조심스레 기대하게 된다.



Interview

사진가, 춘천에서 생긴 '일'

Interviewee 박민화

interviewer 지미현



나를 지우며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다른 이름 뒤에 숨어서 보냈던 시간.
춘천으로 돌아와 다시 카메라를 들기 시작하며 마침내
잊고 있던 내 이름 앞에 '사진가'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사진가 박민화. 춘천에서 생긴 '일'이다.
그렇게 이곳에서 나의 삶을 다시 찍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춘천에서 나고 자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삶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 중학생 시절엔 친구들과 지하상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며 놀고, 고등학생이 된 후에는 필름 카메라로 주변을 찍으며 '사진'이라는 세계와 천천히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진은 도망칠 구실이었다. *"그땐 그냥,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사진을 하면 춘천을 떠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 사진을 전공하기 위해 경산으로 향했다. 그러다 졸업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울로 옮겨갔고, 오랜 시간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았다. 춘천으로 다시 돌아온 건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다. 서울 공덕동의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대여섯 살의 아이들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고 있었다. 그런 서울의 공기가 아이의 숨을 조일까 걱정스러웠다. 아이가 뛰놀기에 적당한 자연, 조금은 느슨한 일상, 산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그는 그런 삶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정작 춘천이 더 필요했던 건 자신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결국 '사진'이구나. 그런데도 자신이 없었어요.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며 오래 쉬기도 했고, 잘 찍는다는 확신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가 선정되고 창업공간 입주 기회가 생기며 '한번 나를 시험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고, 결심 끝에 카메라를 다시 꺼내 들고 문을 연 것이 바로 '로이스 사진공방'이다. '로이스'는 박민화의 영어 이름이자, 사라졌던 자신의 이름을 다시 꺼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시작이었다.

입주한 창업공간은 좁고 수익화가 어려웠다. 멈춰야 할지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지역에서 여성 사진작가로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수업과 작업 요청이 이어지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불안과 확신 사이에서 결국 직접 공간을 계약했고, 다행히 남편은 지지해주었다.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오기가 생겨 자신의 사업계획을 더 열심히 설명했다. '사진가 박민화'를 붙잡아주었던 것에는 누군가의 칭찬과 호의도 있었다. "한 시민분이 지나가다 들렸다며 공방에 찾아오셨어요. 사진이 너무 좋아서 공간에 꼭 들러보고 싶었다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면서 엉엉 울었어요. 포기하려는 순간마다 꼭 누군가가 찾아와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죠."

그에게 사진 공방은 일터이자 작업실이고, 동시에 놀이터이자 실험실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제 공간이 거의 사라졌어요. 있어도 아주 작은 공간이었죠. 집안에서는 점점 제가 사라져 가는 느낌이었다면, 사진 공방은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 사진 촬영, 수업, 굿즈 제작, 모임 등 모든 것들이 가능한 공간이죠."* 이곳에서 그는 아이를 키우면서 사진 수업을 열고, '도시가 살롱'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의 기록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역 탐방 활동의 하나로 '스트리트 리포터'로 참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거리로 나가게 됐다. *"이 활동이 저한테는 성냥 같은 존재였어요.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스트리트 리포터 활동이 다시 불붙여줬어요."* 요즘 그는 춘천의 풍경을 찍는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줄기, 봉의산에 드는 아침 빛, 도시와 자연이 맞닿는 순간들. 그 장면들을 기록하는 건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언젠가 잊힐 수도 있는 이 도시의 현재를 남기기 위해서다. *"서울에서 살 때는 산을 보기 위해 북한산까지 가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고개만 들면 산이 보여요.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박민화는 아직 자신이 완전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사실 저도 아직 제 꿈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사진가로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은 건지, 정말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지금도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알아가고 있어요. '사진가 박민화'보다는, 사진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는 언젠가 사진을 매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사진을 찍는 일 너머의 삶, 사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매개가 되는 풍경을 조용히 꿈꾸는 중이다.

춘천은 여전히 답답한 도시일지도 모른다. 빠르게 돈이 도는 곳도 아니고, 자영업자에게 관대한 환경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나 아이의 엄마가 아닌, 사진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호흡대로 춘천에서 살아가려 한다. 춘천에서의 삶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나를 찾는 '일'이었고, 그 일은 지워졌던 이름을 다시 쓰게 만들었다. 춘천에서 생긴 이 '일'은, 그렇게 박민화라는 이름을 다시 세상에 꺼내주었다. 이제는 씩씩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춘천은 나와 닮았다

Interviewee 박지훈

interviewer 김민주



조용하고 느리지만 깊은 색을 가진 도시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박지훈은 22살의 봄 강원대학교 입학을 계기로 춘천에 발을 디뎠다. 3수 끝에 시작된 대학 생활은 단순한 학업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그려나가는 여정이었다. 자취방의 고요함, 공지천 자전거길의 바람, 상상마당에서의 예술적 깨달음, 그 모든 순간이 그를 조금씩 바꿔놓았다.

새 출발의 도시, 춘천

2019년, 문화인류학과에 입학해 춘천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다. 세탁하고 밥을 챙겨 먹는 일조차 버거웠지만, "버틸 만했어요."라는 말 속엔 묘한 단단함이 묻어났다. 디스크 통증으로 아팠던 날, 혼자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기억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때 동기가 함께 밥을 먹으며 인생에 관해 이야기 나눈 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 경험은 한마디를 남겼다. *"사람의 몸은 하나니까 아껴 쓰자."* 1학년 때는 동기들과 술을 마시며 활기찬 대학 생활을 즐겼고, 2학년이 되자 수업에 집중하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자전거길 위의 사색

춘천에서의 삶은 '느림'의 가치를 알려줬다. 힘들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공지천을 찾았다. *"나만의 자전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달리면 마음이 정리돼요."* 박지훈은 춘천의 자연환경 한적함에 매료되었다.

동네의 기억들

그가 살았던 동네는 강원대학교 근처 정문 쪽과 자연과학대 쪽이다. 그 중에서 특히 자연과학대 근처 효제길 동네에서 캘리그라피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조용한 공간과 소양하다 근처 옥탑방 카페를 많이 찾았다고 한다. *"성향 자체가 사람이 많은곳 을 좋아하지 않아서 조용한 곳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 저와 성향이 맞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서 그런 조용하고도 이쁜 공간에 많이 갔어요."*

"또 그 동네를 떠올리면 벨몽드마트의 찹쌀빵이 생각이 나요. 나만의 소울푸드였어요. 참 맛있는데." 지훈의 얘기를 듣다 보면 춘천의 숨겨진 장소들이 궁금해진다. 이러한 취향들에서 섬세하고도 잔잔한 성격이 드러난다.

춘천에서 배운 예술

상상마당 춘천에서 전시회 봉사활동을 하던 시절, 박지훈 씨는 처음으로 예술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였다. 작품을 설명하는 일을 맡으며, 이전엔 관심조차 없던 예술이 조금씩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예술에 대해 잘 몰랐는데, 활동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됐어요."*

그 경험은 그의 감수성을 자극했고, 이후 서울에서도 콘서트나 전시회, 성수동의 문화 공간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즐기게 됐다. *"원래는 하나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LP를 사러 종로에 가고, 성수에서 열리는 공연도 챙겨보게 됐죠."* 예술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결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춘천에 계속 살고 싶어요

서울은 트렌드에 끌려가는 도시지만, 춘천은 자신만의 색을 가진 도시라고 그는 말한다. *"서울은 패스트푸드 같고, 춘천은 슬로우푸드 같아요. 느리지만 뒤처진다는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그 속도에 맞춰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최근 스트리트 리포터 활동을 하며 춘천의 구석구석을 다녔고, 우두동을 보며 "여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과 운동 공간,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든다.

춘천은 나와 닮았다

박지훈 씨에게 춘천은 단순한 대학 도시가 아니다. 자립의 시작, 예술적 발견, 사랑의 기억, 그리고 자신을 닮은 공간이다. *"춘천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서울은 저를 담기에 좁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웬만하면 춘천에 있고 싶어요. 괜히 유행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춘천은 그런 부분에서 저랑 닮았어요."*



Interview

어쩌다 춘천, 평범한 우리

Interviewee 이수현

interviewer 고석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청년, 그가 춘천에 머문 이유

"서울이 아닌 춘천에서? 어쩌다 보니 마음이 편해진 곳이 됐죠."

경기도 광명에서 태어난 이수현은 2019년 한림대 입학을 계기로 춘천에 왔다. 졸업 후 서울에서 잠시 직장 생활을 했지만 맞지 않아 쉼표를 찍었고, 그때 우연히 만난 춘천마임축제 팀장님의 제안으로 다시 춘천에 발을 들였다. *"사업을 할지 고민도 했는데, 결국 춘천마임축제 기획팀 매니저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콘텐츠 제작, 그리고 '평범한 우리'

서울은 콘텐츠 제작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만, 춘천은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창작 집단 커뮤니티를 꾸려 전시 기획과 작품 제작을 시작했다. 현재는 '더픽트'와 '신디자인랩'과 함께 비영리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11명의 팀원과 함께 대학생뿐 아니라 소외된 친구들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며 의미를 확장했다.

이수현이 운영하는 팀의 이름은 플레인어스(Plain Us). 뜻은 '평범한 우리'다. *"대단한 사람만 주목받는 사회지만, 사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명의 삶을 담았고, 처음엔 학교 지원금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비로 출판을 이어가고 있다.

인터뷰는삶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에게 인터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다. *"사람을 만나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과정이 저를 자극합니다.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싶고, 더 전문적인 사람들과 얽히고 싶어졌죠."* 그래서 요즘은 인류학·사회학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그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한다.

춘천에서의 일상, 그리고 익숙해진 풍경

춘천에 정착한 건 계획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대학 시절 소양대교를 걸으며 산책하던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요즘은 약사천을 걷습니다. 걸으며 정리되는 마음이 참 소중하죠."* 리버레인이나 포지티브즈 같은 작은 카페, 그리고 대학 시절 즐겨 찾던 육림고개를 좋아한다. *"춘천이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 이제는 그냥 편안한 집 같은 곳이 됐어요."*

앞으로의 길, '전문가'로

이수현은 내년 하반기 서울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다. 춘천에 계속 머무를지, 광명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반반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더 전문적인 업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삶을 배우는 시간, 그것이 인터뷰입니다. 평범한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멋진 일이 아닐까요?"



Interview

정선의 사진가 이혜진, 춘천의 거리를 찍다

Interviewee 이혜진

interviewer 최민수



"사진으로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게 제 목표예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산맥 한가운데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 정선군. 모든 아리랑의 기원으로 뽑히는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로 불리기도 하고, 카지노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관광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춘천에서는 차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곳이다. 바로 이곳, 정선에서 춘천까지 자신의 꿈을 위해 먼 걸음을 달려온 스트리트 리포터 2기 이혜진을 지난달 31일 조운동 도시재생센터에서 만났다.

이혜진 리포터는 1993년에 정선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줄곧 정선에서 살아온 정선 토박이다. 현재는 정선 고한읍에서 <들꽃>이라는 자그마한 사진작업실을 운영하는 사진가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중학생 시절부터 사진을 찍어왔다. 동네 사진관을 운영하시던 삼촌에게 촬영을 배운 게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단순 취미 생활이었다. 그러나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이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꿈을 정했다. 스냅 사진작가.

모든 꿈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스냅 사진작가 역시 그랬다. 다양한 촬영 장비를 구매하고,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이혜진 리포터는 처음에는 사진관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사진관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사진가를 꿈꾸며 첫 전시를 하려고 했어요. 마침, 제가 살던 마을이 탄광 마을이라 폐광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카지노 같은 관광업이 들어오고, 탄광 같은 채굴업이 점차 사라져가는 현재 모습을 찍으면서요. 그러던 중, 저희 마을이 정선이 주관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청년 사진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제안이 와서 마을 사진관을 운영하게 된 거죠."

현재 이혜진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자신이 나고 살아왔던 정선을 떠나 춘천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스트리트 리포터는 사진가로서 춘천에서 시작한 첫 번째 활동인 셈이다. 춘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스트리트 리포터에 지원하게 됐다는 그는 리포터로서 춘천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약사명동 망대길을 갔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도시에 고즈넉한 골목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골목에 대해 취재하다 보니까 곧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굳이 기존에 있는 곳을 갈아엎는 것만이 발전일까요? 과거를 보존하지 못한 채로 새롭게 도시를 발전시킨다면 사람의 맥락이 계속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춘천은 그런 옛날 골목의 낭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형태로, 이런 곳들을 보존해야 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돼요."

정선에서 온 사진가가 바라본 춘천은 자유로움이 넘치는 도시였다.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는 마을구성원 모두가 건너 건너 서로 아는 사이다 보니까 때로는 자신에 대한 과한 관심이 부담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춘천은 정선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적당한 관심만 있을 뿐, 일거수일투족에는 관심받지 않아도 되니 숨이 트였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로움 속에서 느끼는 적당한 거리가 춘천이라는 낭만에 흠뻑 빠지게 만들었다.

이혜진 리포터는 이번 스트리트 리포터 활동에서 자신의 사진을 통해 춘천 도시재생에 힘쓰고 싶다고 말한다. 앞으로 춘천은 ITX가 확장되고 GTX가 새롭게 개설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맞을 예정이다. 그런 급변 속에서도 춘천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춘천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사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뜻이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이혜진 리포터가 사진으로 담아낼 춘천, 사진기에서 터져 나올 경쾌한 셔터음을 기대해 본다.



정선의 사진가 이혜진, 춘천의 거리를 찍다

상처도 치유도 모두 이곳 춘천에서

Interviewee 정예빈

interviewer 김지현



춘천에서의 삶이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외로움과 이별을 겪게 한 곳이지만 동시에 꿈을 꾸게 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던 곳 또한 춘천이었다. 아프지만 결국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고향, 이곳에서 정예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늘도 조금씩 춘천과 화해하고 있다.

춘천 토박이인 정예빈은 신북읍에서 나고 자랐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후평초등학교로 가기 전까지 작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릴 땐 성격이 좀 소심했었어요. 성격도 조용한 편이었고요. 친구들과 노는 것보단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예빈이 가장 좋아했던 취미가 바로 영화채널 시청하기였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늘 티브이 앞에 앉아 영화 속 스토리에 푹 빠져들곤 했었다. *"CGV나 OCN 채널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콘스탄틴이나 쇼생크 탈출을 재밌게 봐서 그 두 작품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영화와 함께 자라났다. 신북읍을 벗어나 도심에 있는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친구도 많이 생겨 여느 아이들처럼 밝고 활발한 학교생활을 보냈다. 예빈은 그중에서도 특히 중학교 생활을 춘천에서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꼽았다. 함께 급식도 먹고 놀러 다니며 학교에서나 밖에서나 늘 함께하던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가까웠던 친구 두 명과 갑작스럽게 너무 이른 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학업 스트레스가 친구들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작은 도시에서 그깟 고등학교가 대체 뭐길래, 라는 생각에 춘천이 정말 싫고 미웠어요."*

아픈 상처였지만 그 일을 계기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자살 예방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강원대 영상문화학과에 진학한 것이다. 어릴 적 영화 보는 걸 좋아하던 취미가 큰 도움이 되었다. 동기들과 춘천 이곳저곳을 놀러 다니면서 점차 춘천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아픈 기억들도 차츰 희석되었다. *"고등학교 다닐 땐 매일 공부만 했었는데, 대학생이 된 후 친구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춘천에서 지내는 생활이 재밌더라고요. 춘천에서의 생활은 절 힘들게 했지만 결국 저를 치유하는 것 또한 춘천이었어요."*

예빈은 춘천이 가족 같다고 대답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결국 상처를 치유해주는 대상 또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춘천에 계속 머물게 된 이유였다. 춘천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는 어쩌면 완전히 아물지 않을 수도 있다. 춘천과 완전히 화해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춘천은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이면서 지칠 때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되어준다. 그것이 춘천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이제 정예빈은 이곳 춘천에서 상처를 딛고 치유의 영화를 찍을 일을 남겨두고 있다.



연결, 가치, 성장 그리고 원영

Interviewee 조원영

interviewer 김가은



價値 成長. 스트리트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원영이 꼽은 인생 키워드다. 조금은 두루뭉술하게 들리는 두 단어의 조합. 하지만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를 대체할 말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하루 가치 성장에 힘쓰고 있는 원영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누군가가 빛나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조원영이 만든 무대 위에 선 사람이 빛나는 모습을 볼 때, 동시에 자신도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과 지역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조금 망설인다. 그 이유는 15년 동안 한 수많은 활동에 정성과 애정을 담아 일했기에 몇 가지를 뽑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느껴졌다. 조원영은 현재 원주에서 <사소한 연구소>를 운영하며,

원주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원주와 부산의 도시인 영도를 잇는 '원-영 프로젝트'의 하나로 원주 사람들이 영도에서 활동하는 기회를 만들었고, 영도 문화도시센터의 기획자 양성과정 멘토를 맡기도 했다. 또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원주로 초대해 차를 타고 원주를 여행하는 '오를레이 원주'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프로젝트 이후 서울에 거주하던 참가자가 원주로 이사를 오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말로만 들어도 흥미로운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조원영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지면 열 페이지도 꽉 채워 쓸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한다. 그중 일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이야기의 집'을 원주에 만드는 것이다. 이 꿈을 위한 첫 시도로, 오는 11월에 셀러(seller) 대신 텔러(teller)가 있는 '이야기 마켓'을 연다. 또한, '이야기의 집'이 잘 만들어진다면, 이를 다른 지역들에도 연결하여 '움직이는 대학'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4년간 각각 다른 도시에서 살며 일하고 배우는 활동이다. 그의 꿈은 구체적이고 연속적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력과 열정까지 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지면 열 페이지를 꽉 채운 조원영의 버킷리스트가 궁금해진다.

자신의 일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다양한 가치를 연결하여 함께 성장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 더 나아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삶의 시야가 넓어지며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조원영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들의 가치를, 지역의 가치를, 더 나아가 사회의 가치까지 서로 연결 지으며 성장시키고 있다. 인생 키워드인 '가치 성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스트리트 리포터인 조원영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현재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그가 어쩌다가 춘천이라는 도시에 관심을 갖고 스트리트 리포터 활동까지 참여하게 되었을까?

조원영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가진 원주와 춘천이 생각만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습에 아쉬움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러던 와중, 춘천 문화도시센터의 제안으로 '덕후살롱'을 진행하며 춘천의 매력에 빠져 버렸다. 이후 춘천의 매력을 스스로 더 탐색해 보고픈 마음에 스트리트 리포터 활동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춘천에 방문할 때마다 항상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한다. 스트리트 리포터 활동을 위해 아이와 함께 춘천 지하도를 탐험한 날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지하의 길들이 연결된 도시 구조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삶과 문화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낯선 이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럭키춘천에서 하루를 보낸 이야기는 조원영의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가치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걸맞은 삶을 살며 스스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아닐까. 꿈 많고, 다정하고, 행운이 가득한 조원영의 성장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Interview

지역에서 글을 쓰며 살아가는 삶을 준비합니다

Interviewee 지미현

interviewer 박민화



춘천을 바라보고 취재하며 시를 기록하는 '2025 스트리트 리포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참여자들의 자기소개를 듣던 중, 인상 깊었던 참여자가 있었다.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지역살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지미현. 살아갈 지역을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춘천도 고려하기에 매주 알아가고 있었다.

"휴식기를 가지던 중, 춘천에서 진행되는 '스트리트 리포터' 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울산이 고향인 미현은 서울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 그러나 서울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지역살이를 준비하며 잠시 휴식기를 갖는 중이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지역에서 살아갈까를 고민했을 때, '글을 쓰는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번에 참여하는 사업은 관심사와 맞아떨어졌다. 누군가에는 평범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는 특별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춘천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춘천은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사실 미현에게 춘천은 낯선 도시가 아니었다. 춘천에 사는 친구 덕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했었고, 서울과 가깝기에 ITX로 편하게 와서 여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가족들과 춘천에 왔었다. 가족들과 춘천에서 하는 여행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군 복무 중이던 동생을 만나러 왔던 날, 맛있게 먹었던 음식 등의 추억이 모두 춘천에서의 여행이었던 것을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다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인상 깊었던 춘천에서의 일들은 최근에 많았어요!”

가장 인상 깊게 경험한 춘천의 순간은 북스테이(Book Stay)에서 였다. 책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에서 깊은 생각과 위로를 얻었다고 한다. 참여자 대부분이 ‘위로받았다’라는 후기가 많았다고 한다. 미현 역시 그 하루가 오래 기억에 남았고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스테이 사장님이 추천한 책방에도 가보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느꼈던 다른 특색과 감정들을 느꼈다.

“춘천의 책방에서 사람 간의 연결을 느꼈어요.”

책방마다 주인장의 색깔과 성향도 뚜렷했다. 책을 매개로 한 사람과의 연결이 특히 인상 깊게 다가왔다. 춘천 책방만의 온기인 건지 아직 몇 군데 가보지 않았지만, 다녀본 책방들에는 사람 간의 연결, 그리고 환대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지역살이할 곳을 정하지 않았지만, 만약 춘천으로 정하게 된다면 이러한 인상 깊은 느낌들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



Interview

고향인 춘천에서 도움닫기를 준비하는 언론인 지망생

Interviewee 최민수

interviewer 이혜진



인구 3만의 도시에서 28만 도시 춘천으로 나올 계획을 세운 내가 춘천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춘천에 계신 분들에게 *“춘천 어때?”*라고 물어볼 때마다 *“춘천 좋아! 춘천으로 와!”*라고 주저하지 않고 제안한다는 것이다. 춘천이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이렇게 확신이 있을까? 싶었다. 궁금함을 해결하고 싶어 시작한 활동 ‘스트리트 리포터’에서 만난 첫번째 인터뷰이 최민수를 통해 알아봤다.

2002년도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서 태어나, 한림대학교에서 언론 전공으로 춘천을 벗어난 적이 없는 언론인을 꿈꾸는 멋쟁이 대학생이다. 동네를 이야기하면서도 자부심이 느껴졌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방송국에 들어가서 뉴스를 만들고 기사 쓰는 일을 하다가, 올해는 학부 신문사로 옮기면서 언론인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했다. 어릴 적부터 살던 곳이면 답답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었냐고 질문하자, 춘천에 있는 지역 언론사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될 것 같다고 말한다.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의 편안함과 자신감으로 꿈을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이 느껴진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다양한 자극이 들어오는 서울로의 이동을 꿈꾸는 여느 대학생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그가 춘천에 계속 있고 싶은 이유는 특별했다. 서울은 너무 시끄럽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느낌, 그 수많은 자극에 많이 지쳐가는 게 스스로 느껴졌다고 한다. 서울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감이, 다른 도시를 연상했을 때보다 훨씬 부담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자의에 의해서만 서울에 가는 게 아니다. 잠시 편의점만 다녀와도, 친구네 부모님을 마주치기만 해도 *"계속 여기 있을 거야?"*라는 말이 신경 쓰이게 하고 끊임없이 '*아, 여기 있으면 안 되나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민수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없었는지 궁금했다.

"제 주변에서는 그런 성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춘천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바람이 컸고, 춘천을 잠시 벗어나 있을 때는 이상하리만큼 춘천이 그리웠어요. 굳이 다른 데로 나가야 할까요?" 게다가 춘천엔 지역 언론사만 3개가 있다. G1 강원민방, KBS 춘천, 춘천 MBC. 언론인을 꿈꾸는 최민수에게는 춘천에서 도움닫기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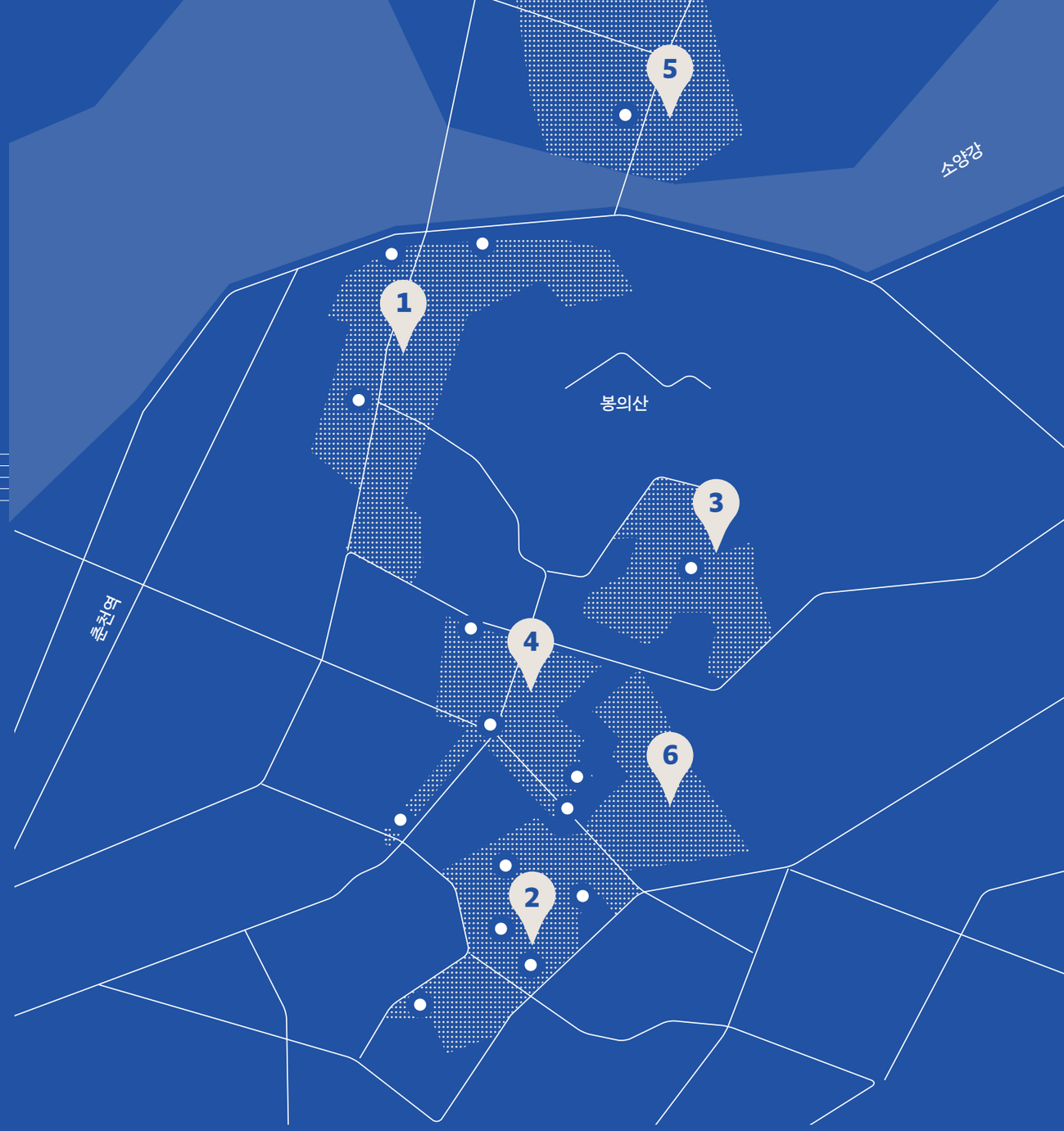
도움닫기를 하기 위해선 나만의 거리에서부터 뛰어와서 도움닫기 발판에 발을 정확하게 딛고 공중으로 떠올라 최대한 멀리 뛰어 착지해야 한다. 그는 지금 춘천에서 발판에 정확하게 발을 딛고 도약하기 위해 내 보폭에 맞는 거리를 재는 중이다. 훗날 날아오르는 그 모습이 궁금해진다.

최민수는 '스트리트 리포터'를 시작으로 춘천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로 거듭나고 싶다고 했다. 자신감 넘치는 그 말에 내년에 이주할 춘천을 나는 벌써 애정하게 되었다.



Map

춘천 도시재생 권역 지도



1 근화소양

사업명: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사업기간: 2016-2022(7년간)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소양동 일원

- **소양강변문화공간**
- **자전거플랫폼 | 호반전망루프**
- **소근소근사랑방 | 인생도서관 | 마을목공소**

2 약사명동

사업명: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사업기간: 2016-2022(7년간)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소양동 일원

- **청년창업공간 | 꿈꾸는 예술터 | 어린이작업실**
- **집수리도서관 | 수공업팩토리** 메이드바이약사천
- **약사리공유공간**

3 교동소양

사업명: 봉의산 비탈마을의 행복한 반란
사업유형: 주거지지원형
사업기간: 2019-2025(7년간)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교동 34번지 일원

- **커뮤니티돌봄센터 | 도시재생공유공간 | 봉의산마을창작소**

4 조운소양

사업명: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
사업유형: 중심시가지형
사업기간: 2020-2026(7년간)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가 80번지 일원

- **조운웰컴센터**
- **상상공원**
- **상상언더그라운드 가** 청소년 연습실, 소공연장
- **상상언더그라운드 마** 갤러리상상언더예술인작업실

5 우두동

사업명: 소양강 햇살 머금은 50호마을
사업유형: 소규모재생, 도시재생 예비사업
사업기간: 2020(1년간), 2022-2023(2년간)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401-95번지 일원

- **누리채**

6 조양운교

사업명: 골목길의 새로운 변화, 행복가득 조양운교
사업유형: 도시재생 예비사업
사업기간: 2022(1년간)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운교동 183번지 일원



Track 1.
Folk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는 동네

46 사람들의 온기가 머물던 자리, 동네 슈퍼 강지연

54 되살아난 청춘, 담터 땡밥 정예빈

60 하루만 서재를 갖고 싶다 이수현

66 춘천이라는 강 김지현

72 봉의산 비탈마을 여행기 김민주

Photo essay

사람들의 온기가 머물던 자리, 동네 슈퍼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했던 동네 슈퍼들이사라지고
환한 조명 아래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과
무인 가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효율성과 편리함을 얻었지만,
계산대 앞에서 오고 가던 따뜻한 안부와
서로의 근황을 묻던 정겨운 대화를 잃었다.
이 글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공간에 관한 이야기이다.

editor 스트리트 리포터 2기 강지연



교동 강서미니슈퍼



교동 삼화슈퍼

골목의 쉼표, 동네슈퍼가 있던 풍경

내가 기억하는 동네 슈퍼는 점방(동네 가게의 사투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다. 심부름 값 100원을 받으려고 후다닥 뛰어 들어간 가게에서, 우리 가족 모두를 알고 계시던 사장님의 "엄마 심부름 왔구나"라는 반가운 인사가 정겨웠고 더운 여름날 저녁, 가게 앞 평상에 앉아서 먹던 딸기 쭈쭈바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 시절 동네 슈퍼는 사람들의 삶이 오가고 이야기가 쌓이는 누구나 드나들던 '사랑방'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 역시 결혼하고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나들가게' 간판을 달고 있던 슈퍼는 나에게 어린 시절 점방과 같은 곳이었다. 내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곳의 자매 사장님 두 분은 늘 한결같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대형 쓰레기봉투를 몇 장 사러 갔던 나에게 혹시 이사 가는 것이냐고, 섭섭함이 가득한 얼굴로 물어보며 따뜻한 관심을 표현해 주던 곳이었다.



근화동 훈이슈퍼

사람들의 온기가 머물던 자리, 동네 슈퍼

편의점 시대, 사라지는 사랑방

계산대 앞에서 항상 우리 가족의 근황을 물어보고 심부름을 보낸 아이에게 막대사탕 한 개를 쥐여주던 그곳은 몇 달 전, 편의점으로 바뀌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재고정리를 위해 며칠간 큰 세일을 한다는 소식에 아이들은 '우리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다'며 매일같이 그곳에 들러 자신의 용돈으로 조그만 간식거리를 사오곤 했었다.

환한 조명 아래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물건들. 24시간 언제든 갈 수 있는 편리함.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계산대를 앞에 두고 날씨나 근황을 묻지 못한다. 바코드를 찍고 카드 계산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정적이 그저 어색할 뿐이다.

비단 내가 사는 아파트 상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집들이 시작되는 동네의 골목 어귀를 지키던 동네 슈퍼들은 10년 사이에 문을 닫거나 사라졌고, 그 자리는 어김없이 편의점 혹은 무인 가게들이 대신했다.

"여기서 40년 장사했어. 예전엔 구멍가게까지 여덟아홉 군데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밖에 없어."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많이 하니까 다들 그곳으로 가더라고."
"다들 그만하라고 하는데 내가 놓지를 못해서…"



교동 영하슈퍼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나

도시의 물리적 풍경이 변하는 과정은 대부분 낡은 것을 허물고, 비효율적인 것을 걷어내고, 새롭고 현대적인 건물과 시스템을 들여오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낡고 오래된 것을 고치고 정비해서 다시 사용하기보다는 새것을 찾아서 계속 이동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는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았다.

"갑작스럽게 변기가 막혀서 펑크린을 사러 새로 생긴 편의점에 아이를 심부름 보냈어요. 근데 없다면서 그냥 돌아왔더라고요. 예전 슈퍼의 진열대는 군데군데 비어 있긴 했어도 그 제품만큼은 항상 있었거든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 따라 필요한 물건이 다르겠구나! 본사에서 일률적으로 리스트를 정해서 가득 채워진 그 상점 안에는 내가 정말 급하게 필요한 물건 하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석사동 거주 주민 A 씨

동네 슈퍼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다

진열대에 놓인 물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골목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해주는 이야기이자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주인의 애정 어린 시선과 그 동네만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최근 몇 번 본 사람들에게 담배 두 보루를 외상으로 준 적이 있는데, 그 후론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근화동 동네 슈퍼 A 사장님

어린 시절, 동네 슈퍼의 외상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것이었고 아버지의 월급날이면, 장부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 위로 두 줄을 쓱쓱 그어 지우는 일은 익숙한 삶의 일부였다. 사람들이 급하게 가져간 물건들을 적어두던 외상장부는 돈을 받지 않고도 타인에게 물건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이자 온기의 흔적이었다.

"엄마가 외상값 갚으러 가는 날에 꼭 따라갔어요. 그날은 덤으로 사탕이나 과자를 하나씩 받을 수 있었거든요."

또한, 골목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길을 묻는 안내소였고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가며 인사를 하고 가게 앞 평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곳. 그곳을 지키던 주인은 동네의 소식통이었다.

닫힌 셔터, 끝나지 않은 이야기

현대 사회는 '정(情)' 보다 '효율'을, '관계' 보다 '편리'를 우선시한다.

끊임없이 나오는 신상품과 1+1 행사가 만들어 내는 소비 욕구에 대해 이성은 욕구 충족을 위한 바코드와 키오스크 등 빠른 계산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 내기에 바쁘고 그 굴레 속에서 사람들과의 교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비판적인 사고와 기개는 사라진 채 '세상이 변해서'라는 간단한 이유를 들어 순응해 버리는 것 같다.

그렇다면 동네 슈퍼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 안에 깃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나는 오래된 가게들을 기록하는 것이 단순히 사라지는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닫힌 셔터, 텅 빈 진열대, 그 속에 담긴 아쉬움이 단순히 가게의 끝을 의미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 공동체의 온기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다.

물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 동네의 골목과 그곳을 지키는 작은 가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부 한 모, 달걀 한 개, 파 한 뿌리가 부족해서 뛰어가고 늦은 밤 가게 문을 통해 새어 나오던 불빛이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주던 등대 같았던 그곳에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사리 형제마트



조운소양동 그린스토아

Interview

되살아난 청춘, 담터 땡밥

editor 스트리트 리포터 27기 정윤빈

도시는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까지 있던 가게가 오늘은 사라지고,
새로운 간판이 세워진다.
그 변화는 당연하지만,
우리는 사라진 공간을 오래 기억한다.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추억과 감정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이다.

춘천 원도심은 다양한 세대의 청춘이 담긴 곳이다. 부모님 세대의 청춘은 삐삐스넥과 유일관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고 육림극장과 함지레스토랑에서 설레는 데이트를 하며 채워졌다. 청구서적에서 책을 고르던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세대의 기억은 조금 달랐다. 급식이 지겨운 날이면 샌토락에서 토스트를 사 먹고, 진아의 집에서 옛날식 햄버거를 베어 물었다. 석식 시간이면 친구들과 담터 땡밥에 모여 앉아 볶음밥을 나눠 먹었다. 야자를 하러 돌아가는 길, 괜히 떠들며 웃던 장면까지 아직도 또렷하다. 그 많은 장소 중 어떤 곳은 사라졌고 어떤 곳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2000년대 춘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기억할법한 장소가 있다. 바로 땡밥집. 2017년 폐업했다가 2023년 다시 돌아온 담터 땡밥.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가 되살아난 이 공간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시청 앞 건물 문을 열자마자 사장님이 환하게 인사를 건네주셨다. 깔끔하게 정돈된 식당 안, 테이블에 마주 앉아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됐다. *"이름은 진강희. 진은 진로할 때 진, 강은 강원도의 강, 희는 희망할 희. 강원도 사람들은 진로를 먹고 희망을 찾는다고 말할 수 있죠."*

사장님의 농담 섞인 자기소개에 순간 웃음이 터지며, 어색하던 분위기가 단번에 풀렸다.



담터 땡밥 진강희 사장님



사장님이 찍어간 졸업사진

나는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꺼내 보여드렸다. 장래희망 칸에는 '땡밥 CEO'라고 적혀 있었다. 땡밥이 너무 좋아서, 상도덕도 모르고 사장님들 허락 없이 멋대로 써넣었던 것이다. 사진을 본 사장님은 허허 웃으시더니 *"이거 내가 찍어가야겠다"*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너무 좋다"*는 말과 함께 셔터 소리가 울리자, 식당 안에는 웃음이 번졌고 인터뷰는 한결 더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손님과 함께 성장한 식당

2004년, 강원대 후문에서 시작한 작은 분식집. 학생들은 고기를 조금만 시키고 밥을 한가득 주문했다. 사장님은 커다란 밥공기를 뒤집어 탁탁탁 두드리며 볶음밥을 쏟아냈다. 그 소리에서 "땡땡땡"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내 공식 상호처럼 굳어졌다.

"밥공기를 '탁' 치면 '땡땡땡' 소리가 났어요. 학생들이 먼저 '땡밥'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메뉴의 진화도 손님이 만들었다. 어느 날 한 강원대 학생이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건네며 "이거 올려보자."라고 제안했다. 체더치즈를 얹어 먹어본 사장님은 곧 메뉴 연구를 통해 모차렐라로 레시피를 바꿨고, 그 순간 '치즈 땡밥'이라는 신화가 태어났다. *"그 학생을 지금도 찾고 싶어요. 그 한마디 덕분에 치즈 땡밥이 생겼으니까요."*

내 기억 속 땡밥은 바로 이 '치즈 땡밥'이었다. 뜨거운 철판에서 모차렐라가 늘어날 때,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던 장면이 아직도 떠오른다. *"야야야, 치즈 봐! 빨리 찍어!"*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기분이다.

잃어버린 시간, 추억으로 다시 이어진 맛

명동과 퇴계동으로 확장하며 전성기를 누리던 땡밥은 2017년 돌연 문을 닫았다. 건물주의 사용 문제, 권리금 미회수 등 자영업자가 맞닥뜨린 현실적인 벽이 컸다. 그렇게 7~8년의 공백이 생겼고, 세대 전승의 고리도 끊겼다. 그 시절 네이버 지식인에는 땡밥을 그리워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땡밥집이 왜 사라진 거죠? 춘천 명물인데 없어졌다니 허탈합니다. 땡밥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고 나도 그중 하나였다. 나는 내공을 몽땅 걸고 질문을 남길 만큼 절실했다. 그만큼 땡밥은 나의 학창시절 한가운데 있었고, 동시에 춘천 사람들 추억 속에도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년 후, 사장님 부부는 계란김밥집을 운영했다. 그런데도 손님들은 사장님 얼굴을 알아보고 *"예전에 땡밥집 하시던 분들 아니냐"*라고 묻곤 했다. 땡밥을 찾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2023년 마침내 김밥집을 개조해 '담터 땡밥'을 다시 열게 되었다. 오픈 초기 7~8개월 동안은 매일같이 긴 줄이 이어졌다. 돌아온 땡밥을 맛보려는 손님들의 환호 속에서 사장님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들이 오면 제일 기뻐요. 가성비 좋았다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죠."*

나 역시 그 줄에 몇 번이나 섰다. 간판 앞에서 오래 기다리다 결국 발길을 돌린 날도 있었고, 겨우 자리에 앉아 첫 숟가락을 뜨던 순간에는 속으로 *"와, 진짜 다시 먹는다!"* 하며 감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땡밥집은 예전과 같으면서도, 달라진 원도심 풍경 속에서 묘하게 낯설었다. 도시와 소비문화는 이미 변해 있었다. 수많은 음식점이 들어서고 배달 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예전처럼 한 음식에 열광하는 모습은 줄었고, 저녁거리는 활기를 잃어갔다.

사장님은 공백기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한 칠팔 년 정도 비다 보니까, 선배가 후배 데리고 와서 먹이고, 또 그 후배가 다시 후배를 데려오는 식의 전통이 끊겼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중, 고등학생들이 거의 몰라요.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햄쏘땡밥

이어 달라진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셰프의 전성시대잖아요. 음식이 예술이 되고 화려해졌죠. 그런데 우리는 좀 소박한 옛날 김치 도시락 같은 맛을 기본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요즘 화려한 음식들에 비해 뒤처져 보일 때도 있어요."* 나도 웃으며 기억을 보탰다.

"하지만 그 시절엔 김치볶음밥 위에 치즈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일 만큼 참신했는걸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땐 나름대로 퓨전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퓨전 아닌 게 없잖아요. 이제 와선 그걸 퓨전이라 하기도 민망해요. 그냥 추억의 맛으로 남아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볶아낸 꿈, 청춘의 대물림

사장님은 여전히 주방에 서서 '노부부가 만들어도 어울리는 음식'을 지켜가고 싶다고 말한다. 크게 번창하진 않을지라도 오래 기억되는 맛으로 남고 싶다는 바람이다. *"땡밥은 제게 큰 행운이죠. 가족을 먹여 살린 감사한 존재예요. 춘천하면 닭갈비, 막국수, 그리고 땡밥이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노포 반열에 들어가면 좋겠죠."*

땡밥은 이미 세대를 잇는 음식이다.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에게는 당연한 기억이고,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도 추억으로 회자된다. 사장님은 작은 꿈도 덧붙였다. *"큰 프랜차이즈는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이 작은 가게를 이어가고 제가 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땡밥을 맛보면 행복하죠."*

언젠가 간판에 '실속형 가맹점 문의'라는 문구를 붙이는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는 사장님. 그 소박한 바람 속에는 여전히 '청춘'의 힘이 담겨 있었다.



땡밥의 치즈

내 삶이 익어간 도시, 춘천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던 인터뷰. 어느새 마지막 질문을 건넬 시간이 되었다. *"사장님께 춘천은 어떤 도시인가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에게 춘천은 땡밥과 같은 도시예요. 제 인생에서 큰 행운이자, 삶의 전환점이 된 곳이죠."*

사장님은 원래 고향은 충주였지만, 대학 진학으로 강원대학교에 오면서 춘천과 인연을 맺게 됐다. 이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결국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겼다. 그 과정에서 땡밥이 탄생했고, 그의 인생은 춘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땡밥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명맥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춘천이 제게 행운이었던 것처럼, 땡밥도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돌아온 담터 땡밥. 볶음밥의 치즈가 늘어나는 순간, 잊고 있던 학창시절이 되살아난다.

사라졌던 공간이 다시 문을 열 때, 오래전의 기억은 살아나고 그 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쌓여간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까지 있던 가게가 오늘은 사라지고, 새로운 간판이 세워진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들도 있다. 부재의 시간은 오히려 그 소중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돌아왔을 때의 기쁨은 배가 된다.

담터 땡밥의 귀환은 추억의 부름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태어나고, 재생되는 도시의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햄쏘땡밥과 단무지 계란국

Interview

하루만 서재를 갖고 싶다

작업실을 갖고 싶은 프리랜서의 생각

혼자 집에서 일하다 보면, 일하기 싫다는 마음과 함께
"작업실 있었으면 좋겠다. 분위기 좋은 작업실."이
머릿속을 맴돈다. 만약 나에게 하루짜리 서재가 생긴다면
어떤 기분일까. 서재에서 일하는 나를 상상하며,
춘천의 대표적인 공유 서재인 첫서재를 소개한다.

editor 스트리트 리포터 27기 이수현

1. 내가 꿈꾸는 서재

낯선 곳에서 익숙한 것을 먼저 찾는 편이다. 처음 첫서재의 문을 열던 날, 내게 남은 익숙함은 '빛'이었다. 낮은 창을 스치고 들어와 바닥에 눕는 빛, 책등의 모서리를 조용히 감싸는 빛. 그 앞에서 알았다. 익숙하다는 감각은 어쩌면 용기의 다른 이름이다. 익숙함 한 조각이 손에 쥐어지면, 낯선 공간과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도 한 문장 더 써볼 힘이 생긴다.

집에서의 일은 사소한 것들에 쉽게 흔들린다. 설거지, 세탁기 알림음, 택배 초인종, 냉장고 문 소리… 집중은 금방 흩어진다. 그럴 때면 나는 하루짜리 서재를 상상한다. 책상이 넓지 않아도 좋다. 의자가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창이 하나 있고, 그 창으로 하루의 시간을 알려주는 빛이 들어오면 된다. 알림음 대신 책장 넘기는 소리, 커피 향 대신 종이 냄새. 타인의 요구가 아니라 내 문장의 호흡으로 방의 리듬을 맞추는 그런 곳 말이다.

첫서재는 그 상상을 현실로 번역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지금'이라는 한 칸을 또렷하게 만든다. 혼자 작업하지만 혼자가 아닌 느낌이다. 이곳을 다녀간 수많은 이들이 응원을 얹어주는 느낌이랄까?



작업공간에서 볼 수 있는 풍경

2. 춘천 워케이션을 꿈꾸고 있어?

워케이션은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일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작은 이동에 가깝다. 약사명동은 춘천역에서 대학교로 가는 길에 있어 친숙하다. 명동에서 밥을 먹고 M 백화점 쪽으로 산책하다 보면, 육림고개가 나온다. 죽림동 성당을 끼고 있는 골목길로 들어서면 도심 속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첫서재가 나온다. 일의 리듬을 맞추려 찾은 첫서재의 글책지기 남형석은 춘천에서 그 리듬을 배웠다고 했다.

"춘천에 와서 처음 신기했던 건 경적이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서울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서울의 만원 지하철이 어느새 숨 막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얼마나 헉헉거리며 날카롭게 살았는지. 배려는 여유에서 나오는데, 그 여유를 춘천에서 뒤늦게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첫서재 입구 풍경



춘천 약사명동에서 워케이션을 시도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 글책지기가 추천해 준 '하루 춘천 산책 동선'을 제안해 본다. 필자는 이렇게 하고 싶다.

오전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과 나누며 적은 메모들을 펼친다. 읽고, 정리한다. 잊고 싶지 않은 말들은 공책에 옮겨 적는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먹고 산다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정오	약사천을 따라 죽림동 성당까지 산책한다. 종탑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이마의 속도를 낮춘다. 가을은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걸 느낀다.
오후	어쩌다농부에서 점심을 먹고 오이트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집필을 마무리한다.
저녁	오늘 쓴 문장을 접어 가방에 넣는다. 내일의 내가 다시 펼쳐 볼 수 있도록.

첫 방문자를 위한 약사명동 일대 1일 산책 동선은 두 가지로 묶어 둔다.

첫서재 포함	약사천 → 죽림동성당 → 어쩌다농부(점심) → 오이트(커피) → 첫서재(머묾)
첫서재 미포함	약사천 → 오이트 → 춘천서림 또는 담작은도서관(책과 시간) → 적파우(손글씨 소품)

워케이션의 핵심은 관광이 아니다. 일을 위한 감각을 되돌리는 것. 첫서재에서 나는 그 감각을 되찾는다. 결국 하루짜리 서재가 해주는 일은 단 하나다. 오늘의 나를 오늘의 일로 데려다 놓는 것이다.

3. 공간을 만든 사람

원래는 작가가 되고 싶던 글책지기는 본래 살아오던 삶을 잠깐 멈추고,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 10년간의 기자 생활을 휴직하고 '첫서재'를 차렸다. 그는 어쩌다 춘천에서의 삶을 택했을까?

"서울에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20달만 운영하고 복직할 생각이었어요. 서울에 살다 보면 재테크, 부동산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저도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았는데 '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기자 생활을 잠시 멈추고, 제 방식대로 첫서재를 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도시 중 춘천을 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여행하다 보면 각자에게 맞는 도시가 있잖아요. 저에겐 춘천이 그랬습니다. 죽림동 성당 근처를 자주 걸었는데, 어느 날 육림고개를 오르다 폐가를 봤어요. 그런데 마당의 라일락 나무가 살아 있더라고요. 죽은 집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공간처럼 보여서 결국 그 집을 샀죠."*

"원칙은 단순했어요. 원래 집의 미감을 최대한 살리자. 상업 공간은 보통 벽을 허물어 넓게 트지만, 저는 오히려 벽을 보존했습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방에서 책을 읽으면서도, 동시에 서로 느슨한 연대감을 느끼길 바랐거든요."

공유 서재를 운영하며 그는 어떤 가치를 얻었을까? 2시간에 5천 원씩 받으며 음료와 공간을 내어줬던 20달 간의 첫서재 운영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었다.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바랐던 그가 얻은 것이 궁금해졌다.

"돈 대신 삶을 받았습니다. 다락방 손님들에게 '5년 뒤 돈이 아닌 것으로 숙박비를 받겠다'라고 했어요.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아 거의 받지 못했지만, 대신 수많은 예술가와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돈보다 값진 가치를 얻었죠. 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목표만 보고 달리던 삶에서 잠시 멈춰, 나와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그의 답은 간단했지만 오래 남는다. 하루만 서재를 갖는 일은, 사실 하루를 온전히 갖는 일이라는 뜻으로 들린다. 우리는 흔히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운다. 그러나 '머무는 법'을 더 오래 배워야 한다. 머무는 법을 배우면, 일도 사람도 도시도 다른 얼굴을 보여 준다.



남형석 글책지기

Interview

춘천이라는 강

춘천은 한자로 봄春에 내川 자를 쓴다.
이 한자의 의미는 단순히 도시의 지명만을
명명하는 것이 아닌 춘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생태를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다.

물방울이 모여 물길이 되고
그 물길이 흘러 강이 되는 것처럼,
삶이란 끊임없이 흐르고 멈추기도 했다가
고인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editor 스트리트 리포터 2기 김지현

강물이 특별한 계기나 뜻이 있어 하고많은 지역 중 하필 춘천에서 소양강이 되기로 선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자연의 섭리 속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억 톤의 액체 중 우연히 소양강의 강물이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누군가는 흐르지 않는 춘천의 고인 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한강과 바다로 흘러가 영영 춘천을 떠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떠났던 물길을 거슬러 되돌아오기도 한다.

춘천이라는 웅덩이 안에서 끝없이 흐르고 흘러가며 흘러들어오는 사람들. 이들이 만든 강에는 얼마나 거대한 애정이 담겨 있을까. 이번 인터뷰에서는 강이 아닌 그 흐르는 물들에 집중해보려고 한다.

춘천의 고인 물, 김영은

유치원 파트 타임 교사로 일하고 있는 영은은 태어나서부터 24살이 된 지금까지 쭉 우두동에서 거주 중이다. 진정한 춘천의 고인 물인 셈이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기 모두를 우두동에서 보낸 그녀에게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동네가 아닌 추억이 깃든 삶의 터전이자 정든 고향이 되었다.

"우두동은 퇴계동이나 후평동 같은 춘천의 큰 동네와 달리 작은 마을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웃 간의 교류도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춘천에 대한 애정도 커졌던 것 같아요."



김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동기들은 모두 서울이나 대도시로 취업해 떠났지만, 영은은 춘천에서 취직하는 것을 선택했다. 타지 생활을 안 해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삶을 경험해보면 할수록 춘천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은 점점 확고해졌다.

"원래도 쭉 춘천에서 사는 삶이 좋았어요. 졸업 후에 잠깐 경기도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 가게 되었는데, 춘천과 달리 삭막하고 외롭더라고요. 사람 간의 교류나 배려심이 더 적기도 했고요. 특히 휴일에도 동네에서 편하게 만날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다 춘천에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집처럼 편안하더라고요. 언제든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휴일에도 전보다 더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있는 춘천에 정착해야겠다고 완전히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영은이 춘천에 남아있기로 한 데에는 유치원 교사라는 그녀의 꿈도 한몫했다. 우두동에서 자라며 배운 고향의 정과 사람의 따뜻함을 춘천에서 커 가게 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었다.

"전 우두동에서 자란 기억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고향에 대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싶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영은은 이제 고향에 뿌리를 내린 완전한 춘천 고인 물의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도 쭉 우두동 주민임에는 변함없지만 유치원을 옮겨 다니며 춘천의 동네 곳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춘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소한 일상도 모두 추억이 되는 따뜻한 나의 집이에요. 홈 스위트홈이죠. 춘천에 있는 동네라면 어떤 동네든 제가 자란 우두동처럼 따뜻한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아이들과 유치원이 많이 있는 온의동에서도 일해보고 싶어요."



2018년 춘천 풍경



2018년 춘천 풍경

춘천을 떠난 물, 신효빈

작년 초등 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한 25살 효빈은 춘천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의 첫 자립을 시작했다. 춘천 지역 이외의 삶을 경험한 적 없는 그녀에게 타지 생활은 큰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었다.

"임용에 합격해 춘천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쭉 춘천에서만 근무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고향인 춘천과 전에 실습 경험이 있던 강릉을 희망 근무지로 지원했는데, 강릉으로 발령이 나게 되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오게 되었어요."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것이 효빈에게 마냥 슬픈 일만은 아니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도시와 작은 학교의 순박한 학생들이 그녀의 타지 생활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물론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는 일이 힘들 때도 있었다. 모든 게 익숙했던 춘천과 달리 강릉은 사람도, 분위기도 모두 생소하게 다가왔다.

"같은 강원도지만 춘천과 강릉은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강릉은 아무리 시내라고 해도 춘천의 시내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또 강릉은 주민들끼리 건너 건너 다 아는 사이라서 가끔은 그런 친밀감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더라고요. 교직 문화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춘천과 달리 강릉은 교직원 간의 소속감과 협동심이 더 커요."

타지 생활을 하며 효빈은 오히려 춘천에 대한 소중함과 자신의 애정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든 고향을 떠났어도 의외로 수월하게 강릉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춘천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믿음이 있었다.

"사람은 추억을 떠올리며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돌이켜보니 좋았던 추억은 다 여기 춘천에 있었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가도 춘천에서 쌓은 행복한 기억이 훨씬 많기 때문에 타지 생활을 하면서 춘천이 왜 나의 고향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강릉에 살고 있지만, 춘천에 대한 그리움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제가 춘천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춘천이 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춘천은 언제나 절 환영한다고 느껴요. 춘천에 오면 기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신효빈

나 홀로 강릉살이도 어느덧 1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효빈은 주말이 되면 늘 춘천행 버스에 오른다. 독립 이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철칙이다.

"독립을 한 건 맞지만 아직까진 독립심보다 가족과의 소속감이 더 커요. 또 저에게 춘천은 어딜 가든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 하는 곳이거든요. 강물을 거슬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처럼요. 저도 은퇴 후에는 춘천에 남아 노후까지 보낼 생각이에요. 그전까지는 계속 춘천으로 거슬러 가는 연어의 삶을 살 것 같아요."

효빈에게 당장의 거주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그녀가 어디로 가든, 어디에 살든 간에 효빈의 집이자 고향은 변함없이 이곳 춘천이라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춘천이란 저를 기다리는 곳이고 제가 가야 하는 곳이자 제 삶의 정착지예요. 춘천을 떠난 게 아니라 잠시 이사한 거죠. 그래서 더 그리움이 크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춘천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춘천이라는 강

도시의 발전은 공장지대와 높은 빌딩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의 재생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에서 시작된다. 춘천이라는 도시를 집이자 되돌아갈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도시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흐른다. 물이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재생의 힘은 바로 도시를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영은에게 춘천은 머무는 집이며 효빈에게 춘천은 나를 기다리는 집이 되었다. 영은이 춘천에 머무르지 않고 효빈이 춘천에 돌아오지 않게 된다 해도 그들의 집은 언제나 이곳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한 마음의 집은 분명 세월의 흐름만으로는 부식시킬 수 없는 견고한 안식처가 되어 오래 마음에 머물 것이다.

도시의 재생은 단순히 골목의 낡은 주택가를 재개발하고 담벼락을 허무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물의 재생을 넘어 춘천이 사람들 마음속의 집이 되어 줄 때, 그리고 춘천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강이 되어 줄 때 비로소 도시의 재생과 정화를 이루어가는 첫 물결이 일렁일 것이다.

Photo essay

봉의산
비탈마을 여행기

editor 스트리트 리포터 2기 김민주

지난 7월 29일, 스트리트 리포터 활동으로
봉의산 마을창작소에 가서 만두를 빚었던 기억이 있다.
그날 만났던 화자 할머니의 정겨운 말투와
골목길에서 느껴졌던 따뜻한 분위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 풍취를 다시 느끼고 싶어,
날씨가 풀린 9월 중순.
나는 뚜벅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지난 7월 29일, 스트리트 리포터 활동으로 봉의산 마을창작소에 가서 만두를 빚었던 기억이 있다. 그날 만났던 화자 할머니의 정겨운 말투와 골목길에서 느껴졌던 따뜻한 분위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 풍취를 다시 느끼고 싶어, 날씨가 풀린 9월 중순. 나는 뚜벅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여정은 춘천시청에서 시작되었다. 시청 앞길을 따라 봉의산 비탈마을을 향해 근화동과 소양강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늘 그랬듯 네이버 지도를 켜고 가장 빠른 길을 찾아 핸드폰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는데, 그 순간 진하게 풍겨오는 커피 향이 나를 멈춰 세웠다.

향기에 이끌려 고개를 돌리니, 싱그러운 풀과 돌담 사이로 오래된 집을 개조한 '오, 늘 춘천'이라는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카페는 후각뿐 아니라 시각까지 자극하는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울 만큼, 향기와 경관을 입에 담지 못한 아쉬움이 깊게 밀려왔다.

하지만 '오, 늘 춘천' 덕분에 나는 지도를 보며 걷기만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평소 에어팟을 끼고 핸드폰만 보며 주변에 무심하게 걷던 나였지만, 그 커피향이 아니었다면 이 아름다운 카페를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나는 에어팟을 빼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오롯이 내 감각에 의지해 춘천의 풍취를 느끼며 봉의산 비탈마을을 향해 걷기로 했다. 조금 걱정도 되었지만, 산으로 가는 길이니 높은 곳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다. 날씨도 좋고, 낭만을 찾아 떠나기엔 더할 나위 없는 날이었다.





주변의 소리와 장면에 집중하며 걷다 보니,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가게, 분위기 좋은 카페, 식당, 그리고 지나는 사람들. 특히 개방된 춘천시청은 잔디 광장과 계단이 어우러져 정말 보기 좋게 꾸며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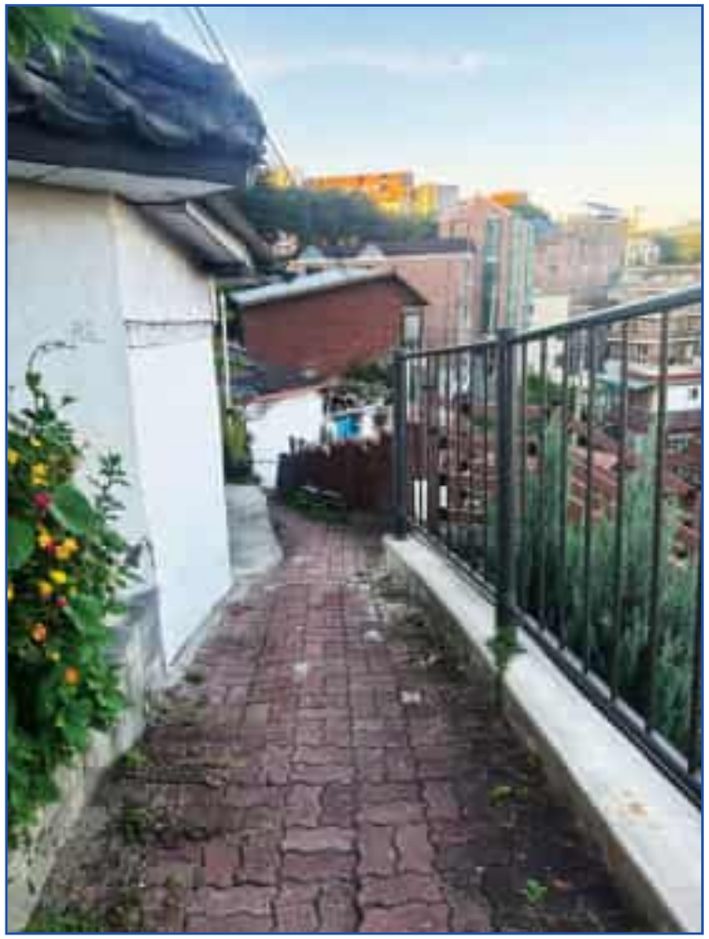
나는 '오, 늘 춘천' 옆 골목길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처음 보는 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험심이 충만했다.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돌려 언덕을 따라 올라가니, 이 골목은 '오, 늘 춘천'에 의해 파생된 카페 거리처럼 느껴졌다. 요즘 말로 '느좋' 카페들이 세 곳 정도 늘어서 있었고, 각자의 매력이 돋보였다.

사장님이 잘생겨서 눈길이 가는 카페, 인테리어가 깔끔한 카페, 타일 벽지로 되어있어 햄버거집으로 착각한 카페까지. 나는 이 골목을 나만의 '오, 늘 춘천 카페 거리'라 이름 붙였다. 다음에 다시 와서 이 거리의 지도를 만들어 도장을 찍어야겠다.

카페 골목을 지나 언덕을 따라 걷다 보니, 자동차의 엔진 소리와 도심의 소음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걷는 소리, 작은 가게 속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중 '김치장인 반찬가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가게 안에서는 마을 주민 아주머니들이 모여 반찬을 만들고 계셨고, 노란 배경에 '김치장인 반찬가게'라고 큼직하게 쓰인 간판이 눈에 띄면서도 정겨웠다. 김치가 얼마나 맛있길래 저런 간판이 있을까? 그런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 길을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니 언덕 위에 적힌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이 길은 '아침길'이었다. 하늘이 정말 예뻤는데, 길 이름 탓인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조용하고 맑은 길이었다.





내리막길로 접어들자, 특이한 간판의 집이 눈에 들어왔다. '철제작 집수리'라고 적힌 건물 안에는 고물들이 가득했고, 그 옆에는 '커피와 꽃'이라는 문구가 적힌 카페 어닝이 달려 있었다. 철, 집수리, 커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처음엔 빈티지한 카페인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도시재생센터에서 마을 주민의 집수리를 도와준 흔적이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자칫하면 폐건물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춘천 사람의 온기가 담긴 리모델링으로 건물이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보였다. 집수리는 오래된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삶의 흔적을 되살리는 일이었다.

이 아침길 집들이 궁금해져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왼쪽 골목길에도 눈길을 끄는 예쁜 집 앞 문패가 보였다. 벽도 알록달록하게 꾸며져 있었고 옆집에도 그 옆집에도 비슷한 분홍 문패가 골목을 다채롭게 만들었다.

마침 내가 바라보던 집에서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다. 예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와, 혹시 마을에서 함께 만든 것인지 여쭤보았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거라며 웃으셨다.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사진을 찍고 간다며, 자랑스럽지만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벽에 붙은 그림도 친척이 붙여놓고 간 거라며, *"별거 아니에요"* 하고 웃는 모습이 정겨웠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아주머니는 공용 텃밭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나는 그 텃밭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가지, 고추, 상추 같은 푸릇푸릇한 채소들이 바람을 맞으며 자라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아주머니는 계단을 놔두고 자신만의 길을 따라 터벅터벅 올라가 가지를 따셨다. 텃밭에 대해 물어보니,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알려주셨다. 요즘은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찍어간다며,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참 따뜻했다.

하나로 통일된 간판, 알록달록한 벽, 다 같이 쓰는 공용 텃밭이 골목은 마치 하나의 또 다른 공동체처럼 느껴졌다. 마을 주민 모두를 만난 것도 아닌데, 유대감이 느껴졌고 길을 걷는 재미가 생겼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마을을 활기차고 생기 있게 만드는 것 같다.

나는 정겨운 아침길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따라 봉의산 비탈마을로 향했다. 내리막이 끝나고 첫 오르막을 만났을 때, 저녁노을과 함께 하얀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다. 노을빛을 머금은 그 건물은 마치 강 위에 떠 있는 백조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봄내극장'이었다. 춘천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소극장으로,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사랑방 같은 공간이다.

알고 보니 이곳은 원래 춘천중앙감리교회 건물이었는데, 역사적 장소성과 시민들의 기억을 품은 채 현대적인 공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 낡은 건물에 새로운 숨결이 깃든 모습이, 마치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는 듯했다.

명동의 길을 걸으며 말만 여행이라 했지, 산책에 가까웠던 내 발걸음이 그 건물을 보는 순간 진짜 여행이 된 것 같았다. 은은한 주황빛으로 물든 그 하얀 건물의 자태는 아직도 또렷하다.

봄내극장을 지나 길게 내리쬐는 노을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만두를 빚었던 교동소양커뮤니티돌봄센터에 도착했다. 그땐 아침에 방문했었는데, 노을이 질 때 다시 찾으니 또 다른 느낌이었다. 화자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땐 바빠서 보지 못했던 주변 건물들도 눈에 담았는데, 향교 뒷길을 따라 봉의산 마을창작소를 찾았다. 뒤편의 높은 경사에 그네와 계단이 편하게 놓여 있어, 마을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걷기 좋은 공간처럼 보였다. 지대가 낮은 마을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잘 가꿔놓은 내리막길도 인상적이었다.

그 내리막길에 감탄하며 내려가다 보니 벽화가 보였다. 금세 춘천 향교까지 도달하여 향교 담벼락에는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이 담긴 그림들이 펼쳐져 있었고, 나는 그 벽화를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 마을이 품고 있는 시간의 결을 느꼈다.

봉의산 비탈마을 여행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다. 에어팟과 핸드폰 속 지도에 가려져 있던 나의 눈과 귀를 열어, 춘천의 소리와 풍경, 사람들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골목마다 스며든 삶의 흔적,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닿은 간판과 텃밭, 그리고 노을에 물든 봄내극장의 자태까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여행'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었다.

다음에 다시 이 길을 걸을 때는 지도 대신 감각을 믿고, 소리 대신 마음으로 들으며 풍경 대신 기억을 따라 걷고 싶다. 그날의 봉의산 비탈마을은 춘천의 향이 가득 담긴 길이었다.





소보,《춘천 歌》

Track 1. folk

《춘천 歌》 들으러 가기

‘소보’의 음악은 도시의 시간보다
‘사람의 온기’가 먼저 느껴집니다.

잔잔한 기타 선율과 따듯한 목소리는
오래된 골목과 슈퍼, 사라져가는 풍경 속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포크송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힘,
꾸밈없는 이야기와 다정한 목소리로 노래한
‘소보’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Track 2.
Classic

예술과 도시, 일상에서의 영감

86 도시에서 피어난 예술의 씨앗 박민화

96 소양을 쌓는 공간, 라킷키 작업실 이혜진

104 재생자들: 시공을 넘어 이어지다 최민수

Photo essay · Interview

도시에서 피어난 예술의 씨앗

editor 스트리트 리포터 27기 박민화



1장. 도시에서 피어난 예술의 씨앗

약 10년 만에 다시 고향 춘천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변화'였다. 동시에 '낯섦'이었다. 익숙할 줄 알았던 거리는 생각보다 크게 변해 있었고, 어떤 풍경은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여긴 그대로일까, 여긴 어떻게 바뀌었을까?"

도심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학창시절부터 사진을 찍었고, 더 배우고자 고향을 떠나 공부했다. 이후로 사진은 내 삶의 중심이자 업이 되었다. 그러나 정착 춘천을 '피사체'로 삼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늘 곁에 있었기에, 너무 익숙했기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와서야, 나는 알았다. 춘천은 여전히 나에게 영감의 원천이라는 것을.

다시 카메라를 들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기록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스트리트리포터'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나를 도심으로 이끌었다. 한여름 땡볕 아래, 추억이 깃든 오래된 골목을 걸으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던 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낡았지만 정겨운 건물과 사라져버린 풍경의 빈자리, 그리고 변화 속에서 새롭게 쌓여가고 피어나는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내게 다가왔다. 나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도시가 주는 영감에 기대어 편견 없이 사진에 춘천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춘천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도시다. 어린 시절에는 어디서든 고개를 들면 산이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 빌딩 숲속에서 살던 시절, 나는 주말마다 일부러 산을 찾아야 했다. 그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산과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내 삶과 예술을 지탱하는 숨결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춘천으로 돌아왔을 때, 개발로 인해 도심의 산세가 가려진 곳이 많아졌다. 변화는 필연이지만, 잃어버린 풍경의 빈자리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10년 뒤 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기록해야 한다."

카메라를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다시 만나는 춘천은 낯설면서도 친근했다. 특히 봉의산과 소양강은 나를 오래 붙잡았다. 춘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봉의산 정상에는 처음 올라봤고, 등산로마다 남아 있는 역사적 시간의 흔적들과 의미들을 알아가면서 나는 깨달았다.

"고향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너무 모르고 있었다."

아이를 낳고 한동안 손에 쥐지 못했던 카메라를 다시 들면서, 나는 '사진가로서의 나'를 다시 만났다. 골목과 산과 강을 따라 셔터를 누르는 일은 다시 나를 일깨우는 일이었다. 풍경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도시가 품은 시간과 이야기를 불러내고, 사진은 다시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춘천 도시의 풍경뿐 아니라 그 너머의 담긴 감정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도시에서 받은 영감이 언젠가 작품이 되고 전시로 이어져 또 다른 예술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오늘도 나는 카메라를 들고 춘천의 골목으로 나간다.









2장. 도시의 영감으로 피어난 예술작품

봉의산을 오르기 위해 소양정으로 향하던 길,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여운 캐릭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계심'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다. 소양정으로 오르는 길에서 조금 전 마주한 캐릭터의 묘비석이 나타났다. 순간, 호기심이 일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 왜 이곳에 그녀의 이야기가 남아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작은 궁금증은 나를 춘천의 역사 속으로 이끌었다.

"전계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그 안에는 춘천의 역사와 한 시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무대 위로 되살려낸 한 예술가 - 정인화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9월 초 가을, 가랑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전계심 캐릭터가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거리에서 인화를 만났다. 뮤지컬을 전공했고, 남편의 발령으로 춘천에 오게 되었는데 *"춘천이 너무 예뻐서 계속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춘천의 풍경을 살펴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후로 춘천은 삶의 무대가 되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축제와 문화 행사가 일상처럼 펼쳐지는 도시, 춘천. 자연스레 공연과 예술이 생활에 스며드는 이곳에서 무대에 대한 인화의 열망은 점점 더 커져갔다.

"공연이 너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눈빛이 그 열정을 말해주었다. 정인화는 마침, 공연을 만드는 친구를 만나게 되어 함께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고, '어떤 이야기의 공연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전계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곧, 영감이 찾아왔다. *"계심, 그녀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만들어야겠어!"* 그 생각 하나로 약 8개월을 혼신을 다해 작품을 준비했다.



전계심브루쓰 영상

작품을 만들기 위해 먼저 자료조사부터 시작했다. 역사적 기록과 자료들을 찾아 읽고, 공부하고 공부했다. 대본의 대사 한 줄, 한 줄 직접 써 내려갔고, 노래와 무용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했다. 때로는 혼자 골목을 걸으며 장면을 상상했다. 배우에서 창작자로 작품을 완성하고 있었다. 춘천의 골목과 산, 강을 거닐며 전계심의 마음을 상상했다.

"이곳에서 서 있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을까?" 그 질문을 품고 매 장면을 쌓아 올렸다.

그렇게 만들어진 네 곡의 주제곡은 전계심의 삶을 노래했고, 춘천의 역사와 감정을 무대 위에 새겨 넣었다. 인화는 전계심을 단순한 비극의 여인으로 그리지 않았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으로 다시 세웠다.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담고, 지역과 소통하는 예술을 꿈꾸었다. 그렇게 계심의 이야기는 2023년, 모노뮤지컬《전계심브루쓰》로 무대화 되었다.

"공연을 보신 분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어요!" 그때를 회상하여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 공연은 단지 무대 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를 잇고, 시대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라는 것을.

비록 그 공연은 여러 사정으로 재연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교육과 공연 프로그램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화는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지역의 인물을 노래하고 연기하게 하며,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 다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물었다. *"도시에서 영감을 찾고 싶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한 마디만 해주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역사적 인물이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을 때는, 먼저 정확한 자료조사부터 해야 해요. 그리고 메시지는 명확하게.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예술이 누군가에게 가 닿는 방식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을 지켜내는 일은 어렵다. 도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예술의 시작이다.

봉의산의 능선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소양강의 물빛이 계절마다 달라질 때마다 춘천은 다시 새로워진다. 도시가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그 안에서 예술은 여전히 피어난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그 영감을 따라, 또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Interview

소양을 쌓는 공간, 라킷키 작업실

editor 스트리트 리포터 2기 이혜진



도시재생에는 필수 불가결인 요소가 있다. 바로 '사람', 사람이 참여해야만 비로소 도시재생이 완성된다. 그중 예술가의 참여는 도시재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예술가가 도시 안에서 어떤 감각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는지 알아보러 춘천으로 떠났다.

춘천은 도시를 돋보이게 하는 예술가도 많고 강과 산이 어우러져 있는 매력적인 도시다. 특히나 춘천 톨게이트로 향하는 내리막 왼편에 보이는 산과 도시의 모습이 춘천을 올 때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도시를 가로질러 소양강을 건너다보면 소양2교에 해가 떨어지는 풍경은 넋 놓고 바라보게 만드는 풍경이다. 이렇게 큰 강을 차와 사람 모두가 편히 천천히 건너갈 수 있는 도시가 춘천이다. 강을 건너면 우두동인데, 이곳에 라킷키 작가의 작업실이 있다. 집이자 작업실에서 보이는 풍경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소양강이 흘러가고, 오후 무렵에는 기울어진 해가 강에 비쳐 윤슬이 반짝반짝거렸다. 매일 이런 풍경을 마주하며 그림을 그리면 '지루할까 아니면 영감을 받을까' 궁금했다. 시원하게 트인 거실에 서서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니 작가의 작품과 공간, 그리고 바깥 풍경이 모두 어우러지는 점이 매력적이다.





작업실 창밖으로 보이는 소양강을 마주하며 그린다는 것

"소양강을 바라볼 때마다 시간의 개념이 생기고 현재에 있게 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오늘을 살고 있구나. 라는 감각을 일깨워주는 곳이 소양강이에요."

바쁜 일상을 살아내거나 복잡한 관계에 얽히다 보면 과거에 잡혀 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자연을 찾는다. 작가는 수많은 자연 중 '소양강'을 선택한 것이다. 흘러가는 물결을 보면서 그 위에 비친 빛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있다는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도 자연의 일부로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는 하루하루 낡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천천히 변해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고 하루의 의미를 느끼기도 한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도시를 누리기보다 적응하기 바쁘지 않을까.

그림의 소재를 매일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서 영감을 찾는 데에 많은 품이 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작가는 키우는 강아지 '마루'와의 산책 시간 속에서 그림 속 소양강을 만난다고 한다. 작업실에서는 오롯이 그림 그리는 시간이 더 많다. 도리어 창밖의 소양강은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매몰되어 멍한 기분을 깨우고 환기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했다.

"어느 날 가만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소양강을 바라보고 있자면, 나라는 존재를 위해 신경 써서 돌봐주고 있다는 기특한 생각이 들어요."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

한창 전시준비로 바쁠 땐,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내야 한다.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두 끼만 먹고 강아지 산책 두 번과 씻는 시간 빼고는 계속 앉아서 그림을 그린다. 매일 10시간씩 그리진 않더라도 마감까지 본인 역량의 200%로 무리하는 성격이라는 걸 잘 알기에 그리지 않는 시간이 적더라도 완성도에 대한 목표만 세운다면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작가의 그림은 점묘화인데, 5겹의 점들을 쌓아야 한다. 어느 날 마주한 햇빛 속에 노이즈처럼 자잘하게 펼쳐진 입자들을 보면서 점으로 표현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입자들이 모여 자연과 세상을 만든다. 점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에게 시간이 쌓여있음을 드러내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작품이 설득력 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더욱 잘 표현되는 것 같아 선택한 화풍이라고 한다. 이 긴 작업을 어떻게 꾸준히 해낼지 궁금했는데 작가가 작업실에 앉아서 붓을 드니 강아지 '마루'가 무릎 위로 탁 올라와 왼쪽 팔걸이에 얼굴을 대고 자리를 잡는다. '이거구나' 싶었다. '마루'와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 작업을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다.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의미

춘천에서 살기 전의 작가 작업을 보다 보면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을지 가늠이 될 정도로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표현했다. 그때 작품을 본 사람들의 피드백은 '예쁘지만, 틀에 박힌 느낌이 든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과거에는 작가의 통제 속에 꽉 들어차 있는 작업만 했었다. 그때는 그곳에 사는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서 변화가 두려웠다. 변화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바람도 빛도 표현하지 않았었다. 바람, 빛, 물결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테니 말이다.

"산다는 건 내 통제 속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밸런스 좋은 작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어보자 싶었어요"

작가는 변화를 위해 이주할 지역을 살펴보다 '춘천일기스테이' 부부를 보러 춘천에 놀러 왔다가 소양강을 보는 순간 춘천을 선택하게 됐다. 작가 자신을 강박 속에서 풀어내고 물처럼 흘러가고 느슨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춘천을 만나게 된 것이다. 작업실 겸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고려했던 게 소양강이 보이는 곳인지가 중요했고, 이곳을 만났을 때 함께 임장하러 다니던 '춘천일기스테이 부부'와 작가는 바로 여기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이제는 작업에 쓰이는 컬러도 최소한으로 쓰고 흘러가는 느낌만 잘 표현하려고 한다. 흘러가는 물결과 그 위에 반짝이는 빛은 찰나만 볼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은데, 작가는 눈과 마음으로 그 찰나를 채집하여 작업실로 돌아와 그림 위에 찰나의 기억과 흔적을 그려낸다.

소양강의 잔잔한 물결이 보이는 작업실에서 작가는, 급변하는 도시의 흐름 속에서도 오래된 기억과 정취가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의 작품은 도시재생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시간이 쌓인 장소의 결을 그려내는 과정에 있다.

작업실에 대한 한마디

"제 작업실은 안전지대 같아요. 저는 불안이 높은 사람이에요. 소양강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많은데 그게 내 집이자 작업실인 이 공간에서 풀어낼 때는 불편함 없이 다 쏟아낼 수 있어요. 이게 저에게는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작업실이 저에게는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라킷키 작가의 작업실은 시간을 점으로, 기억을 빛으로 쌓아 올리는 공간이다. 그의 작업실은 소양강의 물결과 함께 켜켜이 쌓여가는 소양의 풍경이었다.



Feature Article

재생자들: 시공을 넘어 이어지다

소프라노 김청자,
춘천에서 말라위까지 울려 퍼진
‘재생의 목소리’

editor 스트리트 리포터 2기 최민수

‘원조 해외파’ 소프라노

한국인 최초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 올라 이름을 알린 메조소프라노 김청자는 강원도 춘천 태생이다. 1944년 태어나 춘천여자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청소년 시절을 줄곧 고향에서 보냈다. 이후 서울로 옮겨가 진명여자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는 학창시절에 성악가를 꿈꿨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 수녀원 간호사 프로그램에 취업하며 한국을 떠난다. 11살 때 춘천 죽림동 성당에서 하느님을 믿게 된 후 줄곧 독실한 신자로 살았던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독일에서 만난 신부와 수녀의 도움으로 아우크스부르크 레오폴트 모차르트 음악원에 장학생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죽림동 성당의 아일랜드 선교사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성가대 반주를 하며 키워갔던 소박한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그렇게 피아노와 성악을 전공하며 실력을 쌓아 1968년 무사히 음악원을 졸업하게 된다. 그리고 1970년, 스위스 베른오페라단과의 전속계약을 맺고 모차르트의 ‘티토황제의 자비’에 출연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유럽 오페라 무대에 서게 된다. 곧바로 다음 해에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이후 독일 카를스루 국립오페라단원 생활을 비롯해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순회하며 16년간 성악가로서 활동했던 김청자는 뒤셀도르프 오페라단의 프리마돈나로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특히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와 베르디의 ‘아이다’ 같은 유명 작품에 참여하고, 뉴욕, 베를린, 함부르크에서 독창회도 열며 이름을 날렸다.

김청자가 한국에 돌아온 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던 1994년이었다. 성악가로서 명예와 인기를 모두 누렸던 그는 성악과 교수로서 후진 양성에 힘쓰기 시작했다. 65살이 되던 2010년까지 수많은 제자를 키워냈던 김청자는 그해 3월, 정년퇴임식과 함께 기념공연을 펼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40년 넘게 이어진 성악가 인생에 막을 내린 홀가분한 마침표였다.

영혼의 고향을 찾아서

그때부터였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봉사자로서 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인생 제2막의 시작이었다. 계기는 자신의 나이가 예순이 되던 2005년, 교수로서 안식년을 맞아 세계 각지를 여행하던 때였다.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봤던 광경은 김청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춤과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음악가로서의 영혼이 감응했던 걸까. 김청자는 아프리카가 '내 영혼의 고향'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한예종을 은퇴하던 해 9월, 김청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전원주택을 팔아 생긴 2억여 원으로 '김청자의 아프리카 사랑 후원회'를 만든 후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말라위로 떠났다.

말라위 북부의 카롱가 지역에서 그는 음악학원 '루스빌로(희망) 뮤직센터'를 세우고 음악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고자 노력했다. 말라위 추장은 그를 '루케세로(행복을 가져다주는 여인)'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김청자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말라위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 공연하기도 했고, 서울에서 말라위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심지어 김청자의 도움으로 한국 유학에 성공한 사례도 몇 명 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예술가로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 안에 숨겨진 재능을 일깨워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물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물 12개를 만드는 등 말라위를 재생하는 것에 앞장섰다.

말라위 아이들은 그를 '마미'라고 불렀다. 말라위는 인구 약 1,400만 명의 빈곤국가로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지 못한다. 젊은 부모들은 에이즈에 걸려 먼저 아이 곁을 떠나고 만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높아 국민의 70%가 청소년이며, 이중 고아는 100만 명이 넘는다. 밀라위 아이들은 배울 곳도, 먹을 곳도, 놀 곳도 없는 셈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엄마'가 돼 준 김청자 덕분에 아이들의 꿈도 재생되고 있었다.

평온한 마무리를 위해

말라위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김청자는 자기 몸의 유방 쪽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을 느낀다. 왜인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눈앞에는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어린이들과 고통받는 말라위 주민들이 아른거렸다. 그러나 만져지는 멍울을 애써 무시해보려고 해도 계속 크기가 커졌다. 결국, 봉사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던 2022년 10월, 한국으로 잠시 귀국해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유방암 2기.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폐암 의심 소견까지 나왔다. 의사들은 항암 치료를 권했다. 김청자는 항암 치료를 거절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떠났다. 마무리를 짓지 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라위로 돌아가 자신의 흔적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약 2달간의 정리를 마치고 한국에 다시 귀국했다.

김청자는 마음을 바꿨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프리카에서 정리를 마친 후 항암치료를 받았어야 했지만 귀국한 후에도 끝까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생을 끝내기로 한 것이다. 자신이 믿는 신이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치료로 삶을 연장하는 게 더는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귀국한 후로는 약 1년 동안 경상남도 하동의 한 시골집에서 홀로 삶을 보냈다. 그러나 한낮에 50도를 넘나드는 말라위에서 지내던 그에게 한국의 겨울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추웠다. 게다가 종양이 점점 커져 눈에 직접 보일 만큼 커졌지만, 주변에 병원도 없으니 관리하기도 힘들었다. 다시 대학병원을 찾았을 때는 의사가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렵다며 말기 암 판정을 내렸다. 김청자는 덤덤히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간주(Interlude)

김청자가 성악가로서, 선교자로서, 봉사자로서 재생시킨 수많은 삶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각자만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다. 김청자 본인의 삶 역시 독일로의 취직, 성악가 데뷔, 아프리카 봉사, 호스피스 입주 등 여러 변화를 겪으며 그 의미가 재생되고 더 성장했다. 김청자 소프라노를 재생시키는 사람, 즉 '재생자(再生者)'라고 부를 만한 이유다. 김청자가 춘천을 떠난 지 몇십 년이 흘렀다. 그런데 그가 어릴 적 불러왔던 재생의 선율이 메아리가 돼 계속 이곳에 울려 퍼지고 있던 것일까. 세월이 지나,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생가는 어느 계기를 맞고 환골탈태를 이루게 된다.



호스피스(hospice). 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병원을 의미한다. 주로 말기 암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치료를 진행하며, 심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인간적인 삶을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말기 암 환자가 되면 호스피스를 안내받는다. 김청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들을 때 느꼈던 공포감은 막상 직접 와보니까 서서히 사라졌다. 담담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 게다가 로비에는 피아노까지 있어서 음악을 즐길 수도 있었다. 일반 병원에서는 더는 손쓸 수 없다며 치료를 포기했지만, 호스피스는 그를 편견 없이 바라봐 줬다. 그래서인지 시한부인데도 생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지낼 수 있었다고 했다.

김청자는 화려하고, 충만하게, 하고 싶은 대로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자신의 인생을 평한다. 이제는 굿바이를 준비할 때라며 호스피스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현재 집과 호스피스를 오가며 삶을 천천히 마무리하고 있다. 호스피스에 있는 날에는 오후마다 피아노를 치면서 같은 처지의 환우들을 위로해주는 연주를 펼치고 있다. 음악가이자 선교자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집수리도서관,
‘재생자’를 길러내는 학문의 터전

춘천시 약사명동의 골목길에는 흙으로 만든 ‘테라코타’ 작품들이 늘어서 있다. 그것들을 감상하며 홀린 듯 골목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특별한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 고즈넉한 골목에 홀로 크게 지어져 있는 현대식 건물. 투명한 창 안으로 보이는 목재 가구들과 알록달록한 테라코타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이곳은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이 됐던 일명 ‘집수리도서관’이다. 본래 집수리도서관이 있던 자리가 바로 소프라노 김청자의 생가였다. 한평생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의 삶을 재생시켰던 김청자. 그런 그의 삶이 시작됐던 곳이 춘천 주민들의 삶을 재생시키는 터전으로 의미를 되찾은 것이다.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에 선정돼서 2025년까지 약 7년간 진행됐다. 2025년 7월 24일, 우리가 집수리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다행히 지난 7년의 기록을 백서로 정리하기 위해 센터에 남아 있던 김준희 코디네이터를 만나 집수리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기서 사업이 진행됐던 동안에는 전문 강사님들이 오셔서 춘천 주민분들에게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법과 집을 수리하는 방법을 강의해 왔어요. 주민분들이 스스로 집을 수리하시거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아까 보셨던 목공품들과 테라코타들도 전부 주민들이 만드신 거예요.”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준희 코디네이터





실제로 집수리 교육을 받은 주민의 목소리에서는 희망이 묻어 나왔다. 약사고개길에는 '봉동상회'라는 반찬가게가 있다. 봉동상회를 운영하는 박준석씨는 올해 집수리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고, 자신의 건물을 집수리 대상으로 삼기도 한 경우다. 그는 "안에 있는 목재 방문이 벌어져서 아예 다 뜯고 교체할 생각에 막막했죠. 근데 집수리 교육을 받고 방문에 필름을 붙여서 수리하니까 너무 깔끔해졌어요"라며 집수리 교육의 실용성을 강조했다.

고즈넉한 골목에 홀로 크게 지어져 있던 현대식 건물은 도시재생의 거점이었다. 특히 단순하게 거리를 재생하는 일을 넘어서, 거리를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재생에 힘쓰는 '재생자(再生者)'를 길러내는 교육장이었다. 책도 안 빌려주는데, 왜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냐는 기자의 질문에 "도서관은 책으로 지혜를 전달하는 곳이고, 여기는 사람이 삶을 회복하는 지혜를 가르치니까요. 본질이 같아서 아닐까요?"라고 답하는 김 코디의 말에서 이곳의 존재 의의를 되짚을 수 있었다.

"테라코타 거리, 약사 명동만의 특화 먹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전통 장(醬) 만들기,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 등이 기억에 남아요. 전부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았다면 실행될 수 없었을 사업이에요. 재생은 한쪽만 의지가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주민분들과 센터장님, 강사님, 여기를 거쳐 가신 모든 코디네이터들, 그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준희 코디네이터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기간을 정해 진행되는 일시적 사업이다. 사업이 끝난 뒤 도시재생사업단이 떠나면 그곳은 다시 주민들만의 공간이 된다. 그때, 도시재생은 멈추는가? 적어도 약사 명동에서의 도시재생은 멈추지 않을 듯하다. 살아갈 터전을 스스로 고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 즉 재생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이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세포를 재생시키는 것처럼, 도시명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도시는 계속 재생돼야 한다. 사람이 있고, 사람이 살아갈 집이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닐 거리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김청자, <비목>

Track 2. Classic

<비목> 들으러 가기

‘소프라노 김청자’의 목소리는
복잡한 도시 속의 고요를 선물합니다.

섬세한 호흡과 단단한 목소리는
도시의 빛과 그림자,
그 사이를 넘나드는 인간의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클래식의 형식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인간답게 노래하는 목소리,
‘소프라노 김청자’의 음악을 들으며
일상 속 예술의 영감을 찾아보세요.



Track 3.
JAZZ

도시의 맛, 여행이 주는 새로움

118 봄내에서 디저트를 김가은

128 춘천 지하도상가 탐험기 조원영

134 선(線)의 관점에서 해석한 우두동 박지훈

146 춘천의 두 책방이 만드는 '마음이 머무는 풍경' 지미현

Photo essay

봄내에서 디저트를

editor 스트리트 리포터 27기 김가은

심적으로 지치는 어느 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의 위로? 혼자만의 시간?
재미있는 영화나 게임? 모두 아니다.
바로 디저트다. 맛있는 디저트 하나가
사람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다.
안 좋은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공장식 디저트는 재미없다.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상황도, 시간도 없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카페를 찾을 수밖에.
이 글은 춘천에서 가장 맛있는 디저트를
찾기 위해 떠난 하루의 기록이다.

총 여섯 곳의 카페를 방문하였고, 모든 디저트는 포장하였다. 카페에서 직접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고, 좋은 후기가 있는 카페들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또한, 모든 카페는 춘천시 도시재생 사업 권역 내에 자리 잡고 있다.

S#1. 디아_시청 근처 소문난 거대 타르트 맛집

가장 처음으로 향했던 곳은 '디아'이다. 춘천시청별관 바로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dia라고 커다랗게 쓰여 있는 벽이 보인다. 다른 카페에서 흔히 보는 에그타르트보다 훨씬 큰 크기의 에그타르트와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은 크루아상 샌드위치도 유명하다.

카페의 입구에는 평일 12시부터 13시까지는 모든 음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지판도 있었다. 카페 내부로 들어가면 더 큰 매장이 나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더 많은 듯했고, 근처 기관의 직원분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카페에 방문하여 사람도 꽤 있는 편이었다. 들어가 보니 직원분이 이제 막 따끈따끈한 소금빵을 오븐에서 꺼내 진열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소금빵을 구매할지 고민했으나,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큰 크기의 타르트에 눈길이 계속 가서 결국 블루베리 크림치즈 타르트를 구매했다. 포장해달라고 부탁드리니, 종이봉투에 타르트를 넣고 봉투의 손잡이를 빵끈으로 묶어주셨다. 더 잡기 편하게 묶어주신 것이 재치 있다고 느껴졌고, 빵끈도 귀여운 디자인이어서 디테일이 좋다고 느꼈다. 이런 세세한 서비스들로 인해 이 카페에 더 좋은 인상이 남게 됐다.

블루베리 크림치즈 타르트는 꼭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길 바란다. 블루베리가 있어, 그냥 먹었다가 뭔가 아쉬움이 남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보았더니 참 맛있었다. 일단 타르트가 크고, 내부에 크림치즈와 블루베리가 많이 들어있었다.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크림치즈와 블루베리의 양을 보고 이해가 갔다. 하나를 다 먹고 나니 에그타르트도 사 올 걸 그랬다는 후회가 남는 맛이었다.

주소: 강원 춘천시 향교옆길13번길 22, 1층







S#2. 봄내극장 & 춘천미술관_ 감각적인 건물이 있는 춘천 예술의 중심지





다음 카페로 향하기 위해 '디아'에서 3분 정도 걸으니. 언덕 위 멋진 건물 하나가 보였다. 무슨 건물인가 하여 지도를 보니 봄내극장이었다. 주변 지대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예쁜 하얀 건물에서 무대를 한다는 게 연극의 낭만을 더 배로 느낄 수 있는 장소 같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극을 보러 오고 싶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옮기는데, 그 바로 옆에 화환이 잔뜩 서 있는 빨간 벽돌로 쌓인 멋진 건물이 있었다. 화환의 글씨를 읽어보니 춘천미술관이었다. 실은 계속 와보고 싶던 곳인데 인터넷에 운영시간이라든지, 전시 정보라든지 하는 정보가 잘 안 보여서 못 가던 곳이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도 되는 거 같아 냉큼 발을 옮겼다.

S#3. 춘천미술관 내부_ 작가의 세계가 느껴지는 멋진 전시

이때는 1층에서는 서예 전시, 2층에서는 집을 주제로 한 그림 전시를 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림이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서예가 있어서 색다르게 느껴졌다. 이걸 다 어떻게 썼을까 싶으면서도 화면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붓 자국들이 사람이 쓴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가장 좋았던 시는 작가가 손녀의 옹알이하는 모습을 보고 쓴 시였다. 가족애가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작가의 세상에 한 발 더 다가간 느낌이어서 다른 작품들에도 더 큰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작품이었다. 이 외에도 춘천을 소개하고 춘천에서 살아 좋다는 주제의 시들도 있어 작가의 애향심을 느낄 수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작가님으로 보이는 분이 홈웨어를 입고 전시물인 소파에 누워계셨다. 이도 전시의 한 부분으로 보였다. 그림들은 전부 자신의 집에 있는 사물들을 그려 집과 유사하게 작품을 배치하여 정말 작가의 집에 온 거 같은 느낌을 낸다. 콘센트나 인형같이 사소한 그림 하나하나가 작가와 공유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곳에서는 전시가 빠르게 변하는 듯하니 틈날 때마다 들려봐야겠다고 생각했다.

S#4. 카페테리아 오이트_ 다른 메뉴도 궁금해 재방문하고 싶어지는 깔끔한 에스프레소 바

전시를 다 보고 나서 바로 앞에 있는 춘천미술관 바로 앞에 있는 카페테리아 오이트로 향했다. 에스프레소로 유명하지만, 아몬드 크루아상과 같은 베이커리류도 유명하다. 또한, 매달 기간 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 음료도 판매한다.

밖에서는 매장이 작아 보였으나 조금 더 들어가니 더 큰 공간이 아늑하게 있었다. 전체적으로 아늑하고 감각적인 분위기였으며, 휴지까지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테이블마다 놓은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인상 깊었던 것은 직원분들이 모두 하얀 셔츠를 입은 단정한 차림에 모두 점잖게 응대해 주셨다. 마치 아웃백에 온 기분이었다. 이러한 점이 에스프레소 바라는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은 빵들도 있었으며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빵 종류들이 많아 고민하다가, 뺑 오 쇼콜라를 주문했다. 매장 분위기처럼 포장도 깔끔하게 종이 포장지에 싸서 주셨다.

뺑 오 쇼콜라의 패스츄리와 초콜릿이 정말 맛있었다. 패스츄리의 버터 향이 정말 좋았고 고급스러운 초콜렛 맛이 함께 나면서 역시 뺑 오 쇼콜라를 사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몬드 크루아상도 정말 맛있겠다는 확신도 들었다.

주소: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69 카페테리아 오이트





S#5. 톰 커피바_ 고양이가 마스코트인 깔끔한 카페와 처음 접해보는 쿠키

카페테리아 오이트에서 좀 더 중심가 쪽으로 내려가 6분 정도 걸으니 톰 커피바가 나왔다. 골목 끝에 다른 건물들 사이에 숨겨져 있어, 지도를 보면서 갔는데도 이곳이 맞나 긴가민가했다. 골목 끝에서 고개를 돌리니 깔끔한 카페가 있었다. 커피바답게 커피도 맛있다고 하지만, 프로슈트 샌드위치와 바스크 치즈 케이크, 그리고 여러 종류의 쿠키 종류도 유명하다.

매장의 크기도 컸으나 통유리창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있어 더 커 보였다. 매장 입구 쪽은 작업하기 좋은 좌석들이





많이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일행끼리 이야기하기 좋은 소파 좌석이 있었다. 위층은 스테이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실 매장 안에 '톰'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갔을 때는 아쉽게도 만날 수 없었다. 디저트는 카운터에 모형으로 진열되어 있어 고르면 사장님이 직접 따로 꺼내서 포장해 주셨다. 그냥 플라스틱 용기나 종이봉투에 넣어주는 것이 아닌 따로 질소 포장을 해주셔서 더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톰 커피바에서는 갈레트 브루통이라는 쿠키를 구매했다. 처음 들어보는 쿠키들이 여러 종류 있어서 어떤 걸 고를지 많이 고민했는데 카운터에 자세한 맛 설명이 적혀있어서 선택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사실 쿠키에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식감과 모양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 듯하다. 내가 선택한 갈레트 브루통은 부스러지는 식감의 쿠키였는데, 버터 향이 정말 진하게 나서 맛있었다. 근래 먹었던 쿠키 중 가장 맛있게 먹은 쿠키였다. 커피로도 유명한 카페 같으니, 다음에는 매장에서 쿠키와 커피를 함께 먹어보아야겠다.

주소: 강원 춘천시 소양고개길 50-7, 1층

S#6. 오호하우스_다양한 배리에이션의 소금빵이 있는 신생 맛집

건널목을 건너 3분 정도 걸어 다음으로 간 곳은 오호하우스였다. 호반 광장 근처의 작은 카페로, 매장은 따로 홀 없이 운영되는 듯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맛있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어 방문하게 되었다. 음료를 제외하고는 소금빵과 식빵만 파는 카페이나 모든 메뉴가 맛있으며 특히 소금빵이 유명했다.

깔끔한 매장 분위기와 지금까지 간 카페 중 선택지가 가장 넓었다. 여러 종류의 소금빵과 식빵이 진열되어 있었다. 최근 유행했던 티코 소금방과 말차티코 소금빵도 있었고, 초코 소금빵, 무화과 크림치즈 소금빵 등 많은 종류의 소금빵이 있었다. 식빵 또한 탕종 식빵뿐만 아니라 밤, 옥수수, 단호박이 들어가 있는 식빵이 있었다. 선택지가 많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했다.

나는 감자 소금빵을 구매했다.



집에 와서 종이봉투를 열어보니 소금빵과 식빵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섬세하다는 생각과 함께 카드에 적혀있는 대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었다. 소금빵 위에 감자 맛이 나는 짭짤한 가루가 많이 뿌려져 있었는데, 감자향이 나고 짭짤해서 맛있었다. 그리고 소금빵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다음엔 그냥 소금빵도 먹어보고 싶었다. 다음에 갈 때는 또 어떤 메뉴가 있을까 기대되는 재미도 있는 매장인 것 같다.

주소: 강원 춘천시 시청길10번길 4-2, 1층

S#7. 춘천 지하도 상가_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춘천 시민들의 쉼터

다음 카페를 가기 위해 발을 옮기는데, 햇빛으로 날씨가 너무 더워 햇빛을 피해 지하상가를 통해 가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 간 날이 안타깝게도 지하상가 휴일이라 열려있는 매장이 무인 매장뿐이었지만 만남의 광장 쪽으로 가니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다들 햇빛을 피해 만남의 광장에 앉아 쉬고 있는 듯했다. 이런 공간 하나가 사람들에게 있을 만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휠체어나 유모차 대여사업도 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보였다. 광장은 토끼와 달 등의 조형물들로 사진 찍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두었고, 춘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들을 액자로 둥글게 전시해 두었다. 춘천에 여행 온다면 한 번쯤 들려보기 좋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소: 강원 춘천시 중앙로 33





S#8. 수제과점_ 과소비를 부르는 속 편한 쌀 디저트와 귀여운 인테리어

오호하우스에서 지하상가를 통해 한 10분쯤 걸어 육림고개 쪽으로 가면, 귀여운 인테리어의 수제과점이 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 쌀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카페라 방문하게 되었다. 특히 폭신폭신한 쌀카스테라로 유명한 카페이다.

노란 페인트가 발려져 있는 벽과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맞이해주는 외관이 들어가기 전부터 기분이 좋았다. 아담한 내부에는 세 테이블이 옹기종기 배치되어 있었다. 매장은 작은 편이나 디저트 종류가 정말 많았다. 여러 종류의 카스테라와 마들렌, 컵케이크, 구름빵 등 부드럽고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가 많아 이번에도 무엇을 구매할지 고민되었다.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어떤 메뉴가 잘 나가고 이건 어떤 맛이 나는 빵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선택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었다. 밀가루 없이 쌀로 만든 빵들이라 속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사고 싶었으나, 이미 손에 쥐어진 디저트들을 생각하며 코튼볼 블루베리 하나를 구매하였다. 수제과점에서는 지금 복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장님이 빵을 포장하는 동안 복권 한번 긁어보라며 명함 크기의 종이와 동전을 주셨다. 나는 안타깝게도 당첨되지 못했지만, 이런 재미있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험 자체가 카페에 대해 좋은 기억을 만드는 것 같다.

코튼볼 블루베리는 동그란 카스테라 빵 안에 크림과 블루베리가 가득 들어있었다. 카스테라 빵이 너무 부드러워서 맛있었고, 크림과 블루베리가 위에만 얹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가득 차 있어서 맛있었다. 부드러운 카스테라와 달콤한 크림의 조화가 참 좋았다.

주소: 강원 춘천시 중앙로77번길 24-2, 1층





S#9. 카페처방전_ 색다른 분위기의 한약방 콘셉트의 카페

수제과점 바로 건너편에는 카페처방전이라는 카페가 있다. 이름답게 약재를 사용한 차들이 유명하고, 한약도 같이 판매한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츄러스, 케이크, 프레즐 같은 디저트들은 무슨 맛일지 궁금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매장 밖에는 빙수를 판매한다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입간판을 보자마자 카페처방전의 디저트가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전에 한약방을 운영하셨다는 거 같은데, 매장 인테리어도 한약방이 생각나는 분위기였다. 매장 내에서는 한약 냄새까지 나서 정말 색다른 분위기의 카페라 재미있었다. 메뉴도 다른 카페에서는 본 적 없는 다채로운 메뉴가 있어서 메뉴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다. 나는 가래떡 츄러스 라는 메뉴를 주문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고 바로 주방에서 가래떡을 굽기 시작하셨는데, 집에서 가래떡을 구워 먹는 기분이 들었다. 가래떡 츄러스는 구운 가래떡에 시나몬, 인절미 가루를 뿌려주시는 메뉴였다. 고소하고 맛있었다. 구운 가래떡 위에 시나몬 가루를 뿌려 먹는 생각은 못 해보았는데, 잘 어울려서 맛있었고 가래떡 츄러스라는 이름이 재밌다고 생각했다. 가래떡 츄러스와 함께 귀여운 모양의 도시락 픽도 넣어주셔서 어머니가 소풍 가는 날 간식으로 싸주는 후식 같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주소: 강원 춘천시 중앙로77번길 23-4 카페 처방전

이렇게 여섯 가지 매장을 방문하여 디저트를 하나씩 사 먹어보았다. 어느 한 매장이 가장 맛있다고 우열을 두기 힘들 정도로 각 매장만의 매력이 있었다. 또한, 모든 매장이 한 번 더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만족스러운 탐색의 하루였다. 또한, 각 매장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간중간 시민들이 즐기기 좋은 문화시설들이 있어, 앞으로 춘천에 거주하는 동안은 이 시설들을 많이 이용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춘천이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가 많은 도시였다니. 춘천에 대한 애착심이 더 생기는 기분이다.





Photo essay

춘천 지하도상가 탐험기

봄내의 속내를 만나다

editor 스트리트 리포터 27기 조원영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원주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열한 살 준한이와 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행선지는 춘천 지하도상가.

원주에서는 볼 수 없는 지하도를 걸으며,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춘천을 만나보기로 했다.

탐험의 3가지 규칙

- 핸드폰 검색 금지! 오직 발로 걷고 눈으로 찾기
- 마음에 드는 곳은 치킨 키링과 함께 사진 찍기
- 준한이의 질문에 나는 여행 속에서 답 찾아보기

작은 키링이 덕분에 시작된 발걸음

사실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은 작은 치킨 키링이었다. 지난번 내가 춘천에 다녀올 때 준한이에게 선물했던 그것을, 학교 친구들이 보고는 *"이거 어디서 샀어? 나 주면 안 돼?"*라며 부러워했단다. 그 순간 준한이는 자기 반의 '3분 핵인싸'가 되었고, 비록 며칠 만에 고리가 빠져 가방에 달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사러 갈래?"*라고 묻자, 집돌이 준한이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 세계의 첫 만남

지하도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건 귀여운 안내 로봇이었다. 상가 위치는 물론이고 춘천의 행사 정보까지, 심지어 기념 촬영까지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마치 이곳의 작은 지킴이가 방문객을 반기러 나온 기분이었다.

잠시 지상으로 올라가 닭갈비로 점심을, 망고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을 한 후, 본격적인 지하 세계의 탐험이 시작되었다.





시간과 취향이 켜켜이 쌓인 공간

한참을 걷다가 오래된 미용실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에 바랜 외관과 달리, 안에서는 여전히 드라이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키며 쌓였을 손님들의 사연들이 궁금해졌다. 또 다른 가게 앞에서는 '임영웅 데뷔 기념일'을 축하하는 메모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좋아하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사장님의 마음이 전해져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모두에게 특별한 공간

"엄마,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무인상점에 도착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가방에 달린 키링을 보여주며 깔깔대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서로의 취향을 나누는 작은 놀이터였다.

중앙광장에 들어서자, 초록 식물들이 자리한 작은 정원이 눈길을 끌었다. 햇빛도 바람도 제대로 닿지 않는 공간에서 꿋꿋이 자라는 초록의 모습은 지하도를 밝히는 작은 희망 같았다.





질문에서 찾은 '도시재생'의 속내

"나는 질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엄마가 답을 잘 찾아봐! 우선 춘천에서는 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재생'은 무슨 뜻이야?"

준한이의 질문은 쉽지 않았지만, 지하도를 걸으며 조금씩 답을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미용실에서 들린 드라이기 소리, 임영웅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 사장님, 키링을 자랑하며 웃는 학생들, 어둠 속에서도 자라나는 작은 정원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왔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이어가고 재생산하는 과정이었다. 오래된 것을 지키며,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고, 잠든 문화를 깨우고, 끊어진 관계의 고리를 잇는 일. 그 문화적 회복과 관계의 회복이 결국 경제적 순환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풍경은 춘천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장면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낯선 이가 가져온 시선은 익숙한 일상에 숨어 있던 빛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될 자산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으니 말이다.





작은 것에서 발견한 큰 의미

"엄마, 춘천 사람들은 좋겠다. 비 오는 날에도 지하로 다니면 편하고, 여기에 재밌는 가게들도 많잖아. 다음에는 아빠랑 같이 오자!"

여행을 마치며 손안의 작은 치킨 키링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도시와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물이자, 낯선 시선이 오래된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상징이었다.

비 내리던 날 시작된 춘천 지하도 탐험은 도시재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햇빛도 바람도 닿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 오히려 도시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지하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로로 대하는 대신 '거닐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그 공간에 잠시 머물며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감각의 전환이야말로 도시를 새롭게 읽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작은 치킨 키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낯선 시선, 그리고 그로부터 피어나는 작은 만남과 기쁨에서 시작된다는 것.







부록 | 준한이의 탐험 후기

춘천에 지하상가를 가보니 세 개의 길이 각 방향으로 곧게 뻗어 한 길씩 들여다보는게 재밌었다. 가운데 강당 비슷한 곳에 로봇이 돌아다녔는데 춘천에 대해 많은걸 소개해주어서 좋았다. 마지막에 닭다리를 찾았을 때는 마치 어느 큰 숲에서 우리 집 앞에 있던 나무와 똑같은 나무를 찾은 것 같이 익숙하면서 반가웠다.

editor 스트리트 리포터 2기 박지훈

선(線)의 관점에서 해석한 우두동

TRACK 3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

오늘날 여행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상에 있는 춘천이라는 도시를 찾아보자. 큰 여러 면적 단위에서 강원도의 여러 도시 중 하나. 혹은 고속도로에선 가평 다음에 나오는 지역 그리고 지하철에선 강촌 다음 역 등 다양한 이미지로 춘천을 떠올리고는 한다. 이러한 사례는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지역 정체성을 소비하는 현상들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 자주 접한다. 여러 세월을 겪으면서 춘천은 '낭만의 도시'이자 천혜의 자연풍경으로[1] 유명하며, 닭갈비와 막국수라는 음식은 춘천의 대표 음식이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 단위로서 도시를 바라본다면 그 안에 춘천의 다양한 내부적인 가치를 놓치게 된다. 혹자는 도시를 바라볼 때는 행정적 시, 군, 구 단위로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역과 지역 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바라본 '선(線)'의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2]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향수(鄕愁), 행복감이나 진정성이라는 정서감을 느끼듯이, 도시와 사람 간의 관계를 그 지역 안에 남아있는 생활, 감정, 지식, 기억들을 관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결의 관점은 도시를 바라볼 때 나와 도시를 구별해서 보는 것이 아닌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이해하는 인식의 과정이다.

1 [한시로 본 춘천] 자연을 통한 치유 고산대(孤山臺), 허준구(춘천문화원 사무국장), 2017.7.18.
2 대서울길, 김시덕, 2024.7.1.(p.15)

우두동의 시선

여행객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도시인 우두동은 춘천의 주변을 걷고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다리 건너 소양강 너머의 우두동은 또 다른 풍경과 삶을 전달해주는 도시이다. 그뿐만 아니라 춘천의 유려한 길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의 시선을 따라 길을 이동하다 보면, 춘천이라는 도시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발견들은 도시를 선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이뤄진다.



근화동에서 바라본 우두동

우두동의 정체성

첫 번째, 소양강의 기억

"우리 초등학교 때는 거기에 줄을 매 가지고 배를 타고 학교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학교에 못 왔어.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다 없어졌지. 하긴 내가 열 몇 살인가 그럴 땐데…. 오래전 얘기지.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많지."

많은 이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지만, 춘천에 있어서 '강'은 과거의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기억이 되었다. 달리 말해,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강물 흐르듯 흘러갔던 역사이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과거에 우두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과 '뱃터'는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 하나의 통로이면서, 마을과 마을의 문화적 교류의 장(場)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곳은 전후의 추모의 현장이자, 도시의 고속 성장의 근대사의 한 장면을 담은 공간인 '교량'이 되었으며, '댐' 설치로 인한 수몰민의 탄생[3]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양강(맞은 편 장학리), 소양강(맞은 편 장학리), 사라진 우두배터에 놓인 우두교

3 소양강댐과 지역주민들의 일상: 흐르기를 멈춘 강 그리고 정처 없이 흐르는 삶, 김세건, 사회과학연구 54집 2호(2015)

두 번째, 사색의 공간, 충렬탑과 우두정

춘천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봉의산 말고 추천해 줄 산이 있냐 하면 '우두산'을 말해주고 싶다. 깊고도 깊은 곳에 자리한 우두산은 누군가 찾아올 손님을 기다리듯 고요하게 점잖은 모습으로 찾아온 이들을 맞이한다. 충렬탑과 조양루 터는 한층 더 그 모습을 두각 하여 마치 삶에 대한 존엄성을 느끼게 한다. 과거 한국전쟁이라는 비극과 조선시대의 역사가 어우러진 이곳은 지난한 역사의 세월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우두산 올라가는 길에 놓인 축대, 우두산 위에 충렬탑, 우두정(조양루 터), 조양루 터 앞모습

세 번째, 우두동의 골목과 거리

우두동의 투박한 골목을 걷다 보면 정겨운 나머지 인간적이다. 도시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아파트만 보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리감은 멀고 다가가기 쉽지 않으며, 그 의미는 서로 간의 교류의 접점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제는 기억 속에 흐려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러한 인식을 더 둔감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동시에 그 흐름을 몇 년간 겪다 보니, 어떤 도시가 이상적인 도시인지, 더 나아가 이상적인 거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두동을 볼 때면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게 되는 듯하다. 서로 간의 담벼락으로 분리되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정한 골목의 거리감은 그 벽을 허물고 밖에 나와 사람들과 만나도록 하고, 산책을 나가게 하고, 그 안에 사라지지 않고 유지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자연물들과의 교감이 이뤄지는 장소가 된다.

다수가 말하길. 춘천은 호반의 도시이며, 강원도 내의 수부도시(首府都市)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한 장의 수돗가 사진처럼 우두동이란 도시는 그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누군가에게는 고즈넉한 장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애환이 담긴 장소로서 기억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삶을 살아왔던 애증의 공간이 되기도 하다. 어떠한 이름을 가져다 붙여도 각자의 삶이 담겨있는 우두동만의 사연이 담긴 이 공간들은 그저 `사람 사는 곳`이다.



골목 길 안에 있는 수돗가








우두동의 1호이자, 나의 첫 가게

우두동에 있는 '소양강 햇살을 품은 50호 마을'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면 *"전후 미국의 원조를 받아 지어진 춘천 최초의 공공 주택단지로서"*라고 명명한다.[4]

그러나 이곳에 사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찾기 어려웠다. 도대체 '50호'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날 50호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의문을 계기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마음을 열어주신 '일호횟집 사장님'과 '우두마트 사장님'은 바쁜 와중에도 외지인으로서 알기 힘든 50호 마을의 이야기에 포문을 열어주셨다.

4 신사우동, 춘천문화원, 2023, (p.226)
5 신사우동, 춘천문화원, 2023, (p.226)
6 전방(廛房): 물건을 파는 전의 방

시작은 구판장

옛 신사우동에 대해 말해주는 「신사우동(2023)」에서는 과거부터 춘천 사람들은 우두산 아래 펼쳐진 우두평야(우두벌)에 모여 살았을 만큼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명망이 있었다고 한다.[5]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라졌고, 그로 인해 도시와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히 사라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노력은 '50호 마을'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옛날에 전쟁(한국전쟁) 끝나고 나라에서 50호 주택(보호주택)을 짓고, 뽑기를 했는데, 그 때 1번을 뽑아서 1호. 그래서 1호 횟집이에요. 원래는 여기서 구판장 같은 거를 많이 하셨어. 원래 여기가 구판장이 뭐냐면 슈퍼에 쌀도 팔고 연탄도 팔고 하는 데를 말해. 그걸 90년대 전까지 계속하시다가 정리하고…중략)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서 식당을 해보려고 꾸민 거지." 일호횟집 사장님

"지금은 우두 사거리가 유명하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 처음에는 우두상회라고 작은 가게가 있었지. 여기는 이제 전방[6]이라고, 조그맣게 공책, 과자, 옷 이렇게 놓고 팔았지." 우두 마트 사장님

물은 생계 수단이자 일상이었다

춘천의 역사의 한 단면에서는 물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청류마당'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이곳의 오랜 기억은 물을 통해 이동을 가능하게끔 해주었던 '우두뱃터'부터 시작해서 '가두리 양식'까지 물과 춘천 사람들의 기억을 연결해주는 공간이었음을 알려준다.

"저희 아주버님이 양어장을 오래 하셔서 근처에서 향어[7]를 키우시니까 그걸로 횟집을 해보라고 하셔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몇 개 없는데, 예전에 강 사이 중간에 큰 개천 같은 게 강으로 가는데 있었어. 비만 오면 사람들이 거기서 낚시를 많이 했었대..(중략) 예전에는 양어장이 소양댐에 가두리로 민물 양식을 했었는데, 춘천에 상수원 보호구역 그것 때문에 가두리를 다 못하게 되었어요.[8]"

일호횟집 사장님





청류마당

7 유럽 잉어의 개량된 아종
8 댐으로 인한 춘천시 손실액, 연간 약 2천억, 춘천사람들, 2023.3.20









도시에 대한 성찰

우두동의 선(線)을 돌아다니다 보면 애써 모습을 감추지 않은 빈집들이 눈에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현장을 파악하는 것은 힘들 뿐더러 집안 내부의 곳곳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빈집뿐만 아니라 과거 오쇠삼거리에서 발생했던 사건처럼[9]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그들의 시선을 통해 보았을 때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우두동 현지인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공통으로 던진 질문들이 있었다. "이곳에 살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도로와 아파트 그리고 대형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러한 변화들은 외지인인 나로서도 이런 변화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우두동은 택지개발, 고속철도와 같은 개발 사업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우두동이 가진 매력보단 그저 수도권 일부가 되어가는 도시로 보이기 쉽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시의 특색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할까. 도시에 애정을 가지는 과정에서 도시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모습이 과연 인간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는지, 앞으로의 도시 모습은 살아가고 싶은 도시가 아닌 그저 생존을 위한 도시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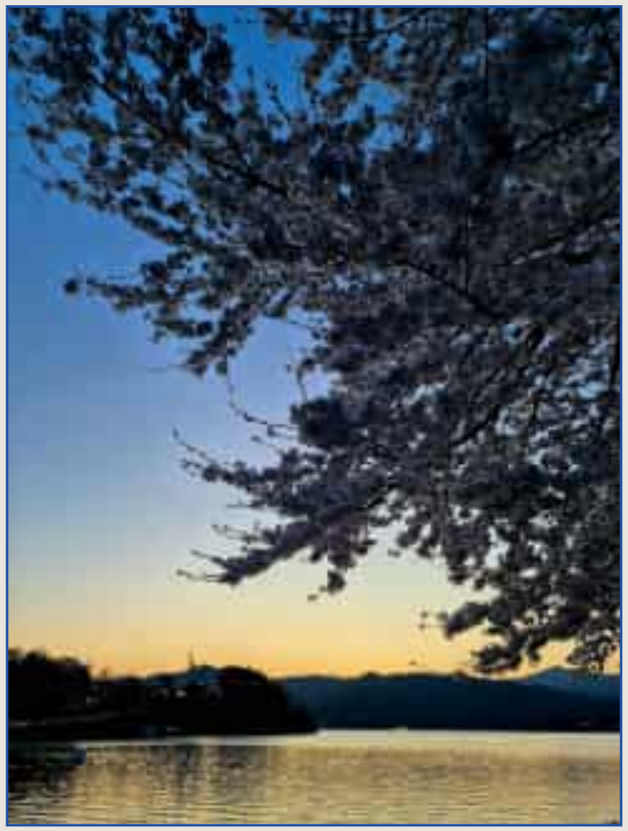


9 철로도, 군부대도, 기지촌도 모두 사라진 자리엔 벌판만이…, 한국일보, 2020.10.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309500005246

Photo essay

춘천의 두 책방이 만드는 '마음이 머무는 풍경'

editor 스트릿 리포터 27기 지미현



사라지는 공간이 늘 안타까웠다. 내 어린 시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학교 앞 문방구도 그랬다. 등굣길엔 준비물을 사고, 하굣길에는 친구들과 몰려가 백 원짜리 불량 식품을 고르며 실없는 농담을 나누던 곳. 그 시절 문방구는 아이들의 하루가 오가던 작은 우주였다. 공부도, 놀이도, 우정도 그곳을 통해 이어졌다. 공책을 사고, 재밌어 보이는 장난감을 구경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생일 카드를 고르던 그 시간 속에는 '물건'보다 '이야기'가 있었다. 언제나 아이들로 북적이던 문방구는 시간이 흐르고 도시가 달라지면서 편의점 간판이 걸리더니, 얼마 전엔 그마저도 사라졌다.

텅 빈 가게 문 앞에 붙은 '임대' 종이를 바라보며, 나의 조각 하나도 함께 사라진 듯 마음 한구석이 휑했다.

도시는 늘 바쁘게 달려가고, 공간은 너무 쉽게 지워진다. 그렇게 제대로 작별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장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기억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도시는 훨씬 앞서 나가 있다. 그 어긋남이 남기는 공허감은 도시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공유하는 감각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새로운 도시를 찾을 때마다 그곳의 오래된 가게, 사람 냄새 나는 공간에 자연스레 발길이 갔다. 춘천에서 만난 두 책방도 그랬다.





아이들에게 다정을 건네는, 책방 바라타리아

춘천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대부분 호반의 도시 풍경을 먼저 떠올리지만,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강도 산도 아닌, 골목 어귀에서 만난 책방이다. 처음 찾은 곳은 근화동 골목에 자리 잡은 책방 '바라타리아'. 낡고 오래된 집들 사이, 2층 창가 자리에서 바라본 오래된 동네의 고요한 풍경도 고요하고 좋았지만, 이곳의 진짜 이야기는 〈미미책〉이라는 선반에 있다. '미래에 보내는 미리 계산한 책'이라는 의미의 선반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미리 결제한 책들이 꽂혀 있다. 책과 함께 누군가를 향한 응원과 다정한 마음을 담은 쪽지를 남기면, 아이들은 책을 고른 이유와 함께 짧은 인사를 또박또박 남긴다. 책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구조다. 오래된 골목에 새 건물만 올린 것이 아니라, 이곳엔 관계와 기억이 다시 놓이고 있었다.

그 풍경을 보며 문득, 도시재생이란 결국 사람의 발길을 되돌리고 마음이 머무르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다정함이 책을 통해 전해진다면, 언젠가 그 마음을 따라 다시 이곳을 찾게 될 테니까. 그렇게 쌓이는 작은 마음들이 도시를 다시 걷게 하고, 지역을 다시 보게 하고, 이 작은 마을에 대한 마음이 '요만큼'은 생기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모인 다정들이 언젠가 인생을, 그리고 지역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책방달방

같은 도시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춘천의 또 다른 책방은 봉의산 자락을 오르면 만날 수 있다. 노란 벽을 지나 얼핏 가정집 같아 보이는 철문을 열면 원목과 자개, 레트로 소품이 어우러진 따스한 공간이 펼쳐진다. 바로 '책방달방'이다. 올라오느라 고생했다며, 책방 주인은 얼음물을 건넨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반긴다'라는 감정이 몸에 닿는 순간이다.

책방달방은 책을 '미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정작 이곳이 품고 있는 건 책 속에 멈춰있는 과거의 시간이 아닌, 책 너머에서 흐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다. 공간 한 가운데 놓인 큼직한 테이블에 어색하게 마주 앉은 사람들은 낮은 조도의 조명 아래에서 어느새 각자의 삶을 꺼내 놓고, 그 대화 속에서 크고 작은 모임이 피어난다. 독서 모임과 글쓰기 모임은 물론이고, 책과는 관계없는 오카리나 모임이나 김장 모임까지. 저마다의 삶이 얽힌 모임들이다.



글쓰기 모임 〈Serendipity〉도 그렇게 시작됐다. 춘천에는 마음을 풀어놓고 이야기하며 글을 쓸 수 있는 모임이 없어 아쉬워하던 모임장은 책방달방 주인장의 공간 지원을 통해 직접 모임을 꾸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원데이로 시작했지만, 춘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5주간의 프로젝트형 모임으로 확장되었다.

모임 이름처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위로와 연결을 얻는다. 나이도 하는 일도 전혀 다른 이들이 모여 매주 글을 쓰고, 각자의 감정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 고민을 글로 써보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조용한 연결은 어둠이 내려앉을수록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책방달방'이 가진 분위기 속에서 증폭된다. 낮에는 어둡게 느껴지던 공간이 밤이 되면 저마다의 빛을 내고, 밝고 빠른 리듬의 일상에서는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고민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마치 도시의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처럼 보였다.









춘천의 두 책방이 만드는 '마음이 머무는 풍경'

사람으로 이어지는 도시의 새로운 풍경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사라지는 공간에 마음이 쓰이는 까닭은 그 안에 남겨둔 시간이 있기 때문이었다. 한 시절을 함께 보낸 장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우리는 단순히 공간의 부재가 아니라 그곳에 쌓인 경험과 관계를 잃었다는 상실감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다. 춘천의 두 책방에서 내가 마주한 풍경은 그래서 더욱 특별했다. 바라타리아의 미미책을 통해 주고받는 다정한 쪽지와 책방달방의 테이블 위에서 오가는 대화의 순간들. 이는 도시가 단순히 '남아 있는 건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맞이하고 연결하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라지는 공간을 안타까워하던 마음이, 책방에서 만난 풍경을 통해 조금은 가벼워졌다. 도시는 늘 변하고 오래된 공간들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기억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 또 다른 풍경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억하는 한, 사라지는 공간 앞에서 느낄 공허감도 조금은 메워지지 않을까. 도시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서사 위에 세워진다.





조운과 좋은 친구들,
《Lazy Sunday》

Track 3. Jazz

《Lazy Sunday》 들으러 가기

도시를 여행할 때 느끼는 리듬과 이동의 감각,
여행자의 마음으로 춘천을 느껴본 적 있나요?
경쾌한 비트와 즉흥적인 리듬은
춘천의 길 위에서 만난 장면들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이번 주말, '조운과 좋은 친구들'의
재즈 음악과 함께 춘천을 여행해 보세요.



Ending Track

160 Photo Record

이혜진

박민화

정예빈

강지연

김지현










조운 힐컴센터




























마을행정복지소 봉의산마을상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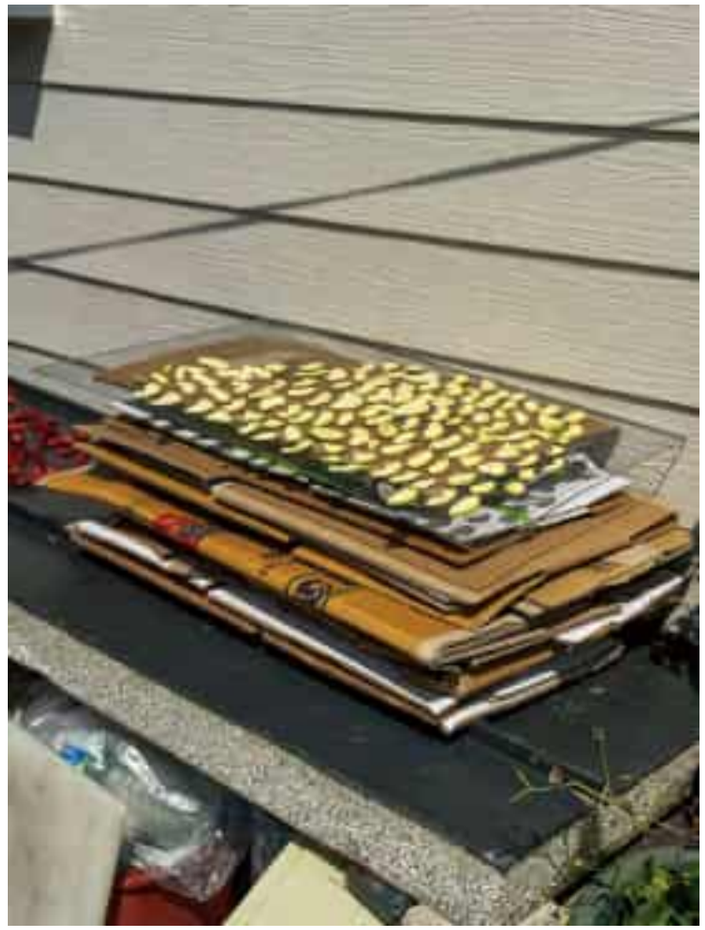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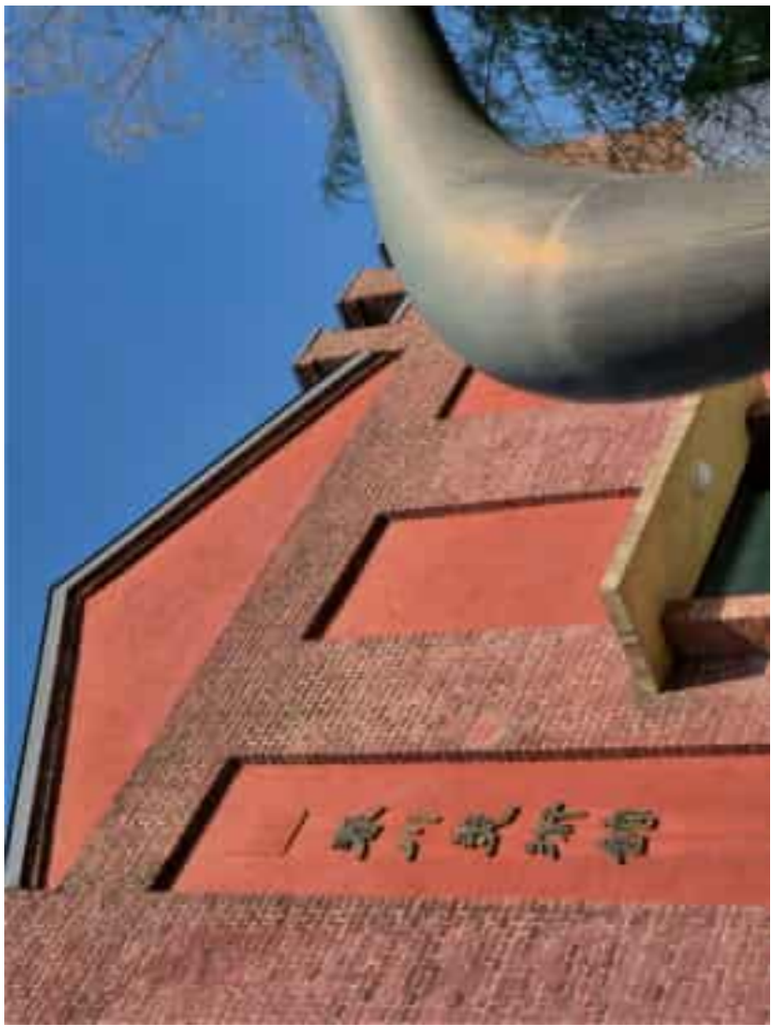










Photo Record

photographer 스트리트 리포터 2기 김지현

Side B

숨은 명곡처럼 곳곳에 담긴 춘천 도시재생 이야기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신현만

기획·구성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노미영 이경은
소양하다 윤한 백낙원

글·사진 강지연 김가은 김민주 김지현 박민화 박지훈
이수현 이혜진 정예빈 조원영 지미현 최민수

교정·교열 소요프로젝트 이나래

디자인 로컬단 박선정

비매품
03060
9 791198 146649
ISBN 979-11-981466-4-9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소양하다